

# 문재인 대통령,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

### 문재인 대통령 “사이티바, 3년간 52.5백만 불 투자해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공장 건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 시각)에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양국 기업과 연구 기관 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보건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체결식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한 후 거둔 4개월 만의 성과로, 실질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인 사이티바(Cytiva)의 한국 내 투자사업자 제철과 한미 백신 기업들과 연구소들 간 업무협약 8건이 체결되었다.

문 대통령은 체결식에 앞서 “사이티바가 내년부터 3년간 52.5백만 불을 투자해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출입을 위한 MOU가 2건 체결되고 백신 공동개발과 위탁생산 협력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기를 기대한다”며 “연구기관 사이의 MOU 체결로 기초연구 협력도 강화되어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마누엘 리그너(Emmanuel Ligner) 사이티바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1,500만 달러의 투자액을 한국에 투자하여 단일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환자들을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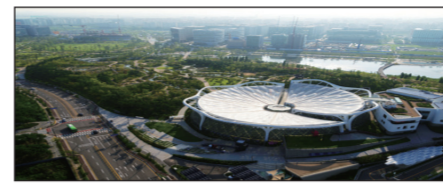
나오는 방식으로 돕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첫째, 협력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점, 둘째 협력의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 위탁생산, 공동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단순히 미국의 원부자재,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양방향으로 협력 방향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진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양국 기업 간 생산 협력과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 기업 대표로 최석근 유바이오로직스 대표, 조양제 아이진(주) 기술총괄대표 등이 참석했고 미국측에는 임마누엘 리그너 사이티바 회장, 타일러 마틴 아쥬번스 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서울시, 온라인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올해 4월, 개장 2년 반 만에 방문객 1천 만 명을 넘어선 서울식물원이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사 대신 유튜브를 통해 세계 유수 식물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식물원에 요구되는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021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을 10.5 10시부터 서울식물원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대면 청중 없이 이뤄지는 온라인 행사로 서울식물원 온실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장 환영사와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식물원 온실에서 운영되는 스튜디오 현장 참석자는 국내 연사와 좌장, 패널로 최소화하고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초대된 미국싱가포르 국외 연사 및 스튜디오 참석자들이 화상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시청자와 화상회의 참석자의 질문은 실시간 댓글로 받아 강연이 끝난 뒤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 시대 그린마스크,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에 직면한 시점에서 해외 식물원 운영 추세를 짚어 보고, 앞으로 서울식물원의 새로운 운영과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원장 펠릭스 로(Felix Loh)가 코로나로 인한 식물전시의 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의 문을 연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관람객의 단위·활동패턴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식물 전시 내용에도 변화를 준 사례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미국 UC버클리식물원의 이산 페너(Ethan Fenner) 원예사가 식물로 조성된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떤 혜택(Benefit)을 받는지에 대해서 강연하고 교육, 전시, 연구사례 등 UC버클리식물원의 풍부한 경험을 공유한다.

세 번째 연사로는 미국 루스 밴크

로프트식물원 브라이언 켈플(Brian Kemple) 큐레이터가 '식물원의 심리적 치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특히 심미(審美)에 앞서 심리적으로 치유 효과를 주는 식물원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치유로서의 가드닝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는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이 나서 코로나19 이후 시민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하는 공간으로서 변화를 모색하고 더욱 무거워진 식물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4명의 국내·외 연사를 포함해 김완순 교수(서울시립대학교)를 좌장으로 패널 이원영 전 서울식물원장, 신규대식물원 전정일 원장이 참여해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 실시간 댓글로 접수된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식물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후에도 서울식물원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행사 참여방법 및 자세한 행사 정보는 서울식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식물·정원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와 교육을 즐기고 식물 문화를 확산하는데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세계 유수 식물원과의 교류를 통해 서울식물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직접 마주하고 논의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더 다양한 분야관심사를 가진 분들의 폭넓은 참여와 성과가 기대된다”며 “평소 서울식물원과 식물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은 지난 2018년 10월 임시 개장을 거쳐 2019년 5월 정식 개원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260만 명이 다녀갔다. ‘공원’과 ‘식물원’을 결합한 서울 최초 보타닉공원(Botanic Garden +Park)으로 50만4천㎡ 공간에 대규모 온실을 비롯한 주제정원, 호수, 습지 등을 갖추고 있다.

최만식/기자

# 수원시 망포글빛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풍성

망포글빛도서관이 10월~12월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21년도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에는 '책이랑 놀자!'(10월 15일~22일)와 '즐거운 책읽기, 신나는 글쓰기'(10월 7일~28일)가 진행된다. '책이랑 놀자!'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통합놀이로,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5세(보호자 포함) 10팀과 6~7세(보호자 포함) 10팀이 참여할 수 있다.

'즐거운 책읽기, 신나는 글쓰기'는 책을 읽으며 등장인물의 입장이 돼 보고, 자신의 경험·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초등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11월 5~26일에는 영어 그림책을 읽고 발견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확장하는 '영어그림책으로 하는 부들부들 생각놀이'가 진행된다. 초등 4~6학년 10명이 참여할 수 있다.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

행되는 '우리아이 행복한 부자로 키우는 알찬 경제교육'은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르쳐서 자녀들의 평생 경제습관을 바로 잡고 싶은 부모를 위한 교육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10월 프로그램은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11월 프로그램은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선착순이다.

조혜영/기자



# 안동시, 천연기념물 용계리 은행나무 첫 수목안정성 조사 연구



안동시는 임하댐 건설로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는 천연기념물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를,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약15m 높이로 들어 올려 심은 지 27년 만에, 생육상태와 지지시설의 안전여부 등 은행나무의 종합적인 안정성 조사 연구를 완료했다.

용계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700년으로 추정되고 높이 37m, 둘레는 14m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수목을 상식(이식)한 상징성이 있다. 은행나무 상식 당시 공법으로 H빔이 지상부 보강구조물로 활용되었지만 이 철강 구조물에 부동침하 등의 문제점이 인지되어 지지시설의 안정성 여부와 생육상태 등 전반적인 진단의 필요성으로 용역을 추진했다.

안정성 조사 연구는 용계리 은행나무의 생육상태와 지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조

사되었다. 은행나무의 생육상태는 활력도 측정기와 지하탐사기(GPR) 등 정밀기기로 측정한 결과와 잎의 크기와 새로운 가지의 신장상태, 뿌리 발달상태가 약 80%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되어 토양개량 등을 통해 적응된 생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생태적 안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식 당시 H빔을 이용한 지지시설의 공법상 문제점과 접합부 등 노후, 은행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부후가 심해져 지지시설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동시 관계자는 용역을 근거로 향후 용계리 은행나무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지지대 설치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전남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잇단 수상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남의 가을 안심여행지 매력 뽐내

전라남도는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와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해 안심하고 여행하기 좋은 전남의 매력적인 가을 관광지 홍보로 최우수 부스 운영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지난 19일까지 열린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전남관광자원 홍보와 거리두기 관광, 부스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부스를 운영해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부산지역의 전남상품 운영여행사인 대륙항공여행사, 경희관광여행사 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 관광상품 운영방안 등에 대해 홍보마케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까지 경기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라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마트관광 산업대전 컨퍼런스가 열려 관광통계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정책 및 관광 혁신서비스 창출, 스마트관광시대 온라인여행사(OTA) 플랫폼 창업사례 등 다양한 스마트관광 흐름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국내여행 조기 예약 할인상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오는 11월 이후 운영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완화된 전남 여행상품 인센티브 지원 조건과 관련 서류 대폭 축소, 지원액 상향 등의 내용을 관련 여행사에 안내해 전남 여행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영만/기자



**나주시 KTX 나주역 일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성장촉진형 투자선도지구**



# 김정숙 여사,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 나눠

김정숙 여사, 한국인 최초 토니 어워즈 무대공연을 한 배우 황주민,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최초 한국 수석 무용수 서희 등 한인 청년 12명과 만남 가져

김정숙 여사는 21일 오전(현지 시각),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뉴욕의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K-컬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브로드웨이에서 진출해 한국인 최초 토니 어워즈 무대공연을 한 뮤지컬 배우 황주민, 아메리칸발레시어터 최초 한국 수석 무용수 서희, 태권도 품새 세계대회에서 4연패하고 현재 미국 육군사관학교 태권도팀 사범인 강수지,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악장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현, 첼시마켓에서 퓨전 한식당을 운영 하는 에스더 최, 유수의 국제 영화제를 휩쓸며 있는 김진기 애니메이션 감독 등 12명의 한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는 이제 세계문화지형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자취와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노력이 K-컬처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여러분의 보물섬으로 항해하기를 바란다”며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뉴욕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윤근 교사는 부모님과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의 전통문화 알리기, 한국어책 읽기 등 다양한 한국어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한국어를 토대로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일한 10대 참석자인 브라이언 전은 뉴저지 테너플라이시에 ‘한복의 날’을 만든 과정과 월 스트리트 태극기 계양행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에서부터 한복의 날을 제정했다는 사실이 한국에도 알려져, 한국에도 한복의 날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으로 한국인이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듣는다고 자랑스럽다. 정부가 더 잘해서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주제인 ‘아주 작은 장벽을 넘어서면’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이 모여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고,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김정숙 여사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해 온 것들을 듣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이타심과 선한 마음, 공동체 의식을 확인했다”며 “K-컬처의 열풍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히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한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6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는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등 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이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

체’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 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운명공동체로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가길 바라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염종현 위원장은 “한반도 외교정세의 경색국면과 남북교류협력에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급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그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 “UN에 가입된 북한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남북 간 평화협력 정책구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7월 21일부터 5일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남북교류 특유 소속 16명 위원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종전선언 촉구에 참여한 바 있다.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마련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지난 13일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 우선공급 ▲먹거리 관련 정보 전달 ▲부천시 먹거리 전략 수립(5년 주기) ▲먹거리 이용실태 조사 및 재정지원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지역에서 생산, 유통, 소비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도 조례로 규정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먹거리 산업의 효율성, 양극화 문제, 안전한 먹거리 등 관련 정책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좋은 먹거리전략 수립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만큼 사업부서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부서에서는 부천시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 전라선 수서행, 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고속철도망이 확대되어 전국각지를 만나질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을 이용하는 지역은 고속철도 이용에 있어 큰 차별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 고속철도 주말 운영 횟수를 살펴보면, KTX 경부선은 122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60회, 전라선은 28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말 수서발 SRT 고속철도가 개통됐지만 수익이 높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 추석을 기점으로 SRT의 전라선 시범운행을 계획하였지만 SRT의 열차 정비 문제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유독 SRT만 투입하려는 입장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에 SRT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며, ‘수서행 KTX 운영’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다.

남원시민 등이 이용하는 전라선은 굳이 SRT를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운행 중인 코레일의 KTX를 수서까지 운행하면 된다. KTX의 경우 철도망을 새롭게 점검·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인력 및 비용도 들지 않아서 수서까지 즉시 편성이 가능하며, 여유차량이 12편성에 달해 전라선에 여러 편의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라선에 SRT가 투입될 경우 한정면허 허가로 단 1대만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운행횟수의 증편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며, 전라선은 고속열차뿐 아니라 일반 열차, 화물열차가 공용하는 선로이다. SRT는 일반선 운영 경험이 없을뿐더

러, 차량의 정비와 유지보수 등을 코레일에 맡기고 있어 전라선에는 SRT 운행보다 KTX가 안전성 면에서 더 적합하다.

이처럼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최적의 대안이 있음에도 SRT만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KTX와 SRT 분할 운영’의 영향이 크다. 고속철도 분할 정책과 함께 국민편익을 위해 수서 SRT가 출범했다. 그러나 SRT가 운행되지 않는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지역의 이용객들은 서울 강남의 수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KTX보다 운임비를 10%싸게 책정된 탓에 KTX 이용객들은 같은 고속철도를 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하고, 동일 운행노선에 두 회사로 나뉘어 운영되는 탓에 해마다 560억 가량의 중복비용이 발생하여 국민행복이 남비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KTX와 SRT가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공금과적은 1일 최대 31,878석이 증가하고 전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비는 10% 내려가며, 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전라선의 경우 28회에서 40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고 언제든 투입 가능한 KTX를 두고 SRT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독점과 특혜만을 늘려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고속철도 분할 정책을 중단하고 철도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의 보편적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안성아경 홀릭 10.1(금) - 11.30(화)**

**랜선축제 클릭 10.1(금) - 10.10(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 아경에 취하고, 랜선에서 노닐다.

안성시 유튜브

안성아경 10.1(금) - 11.30(화) 18:00-22:00

안성맞춤랜드 / 내해출장점 안성천변 / 서안성체육센터 및 송두천

랜선축제 10.1(금) - 10.10(일) 11:00-20:30

개폐막식 / 각종 공연 안성 농특산물 판매 안성시 유튜브 생중계 네이버 쇼핑 라이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baudeogi.com

주최 | 안성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777 경기도

## 종로구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종로구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상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섰다. 여봉무 의장은 9월 17일, 성균관대 킨코스 타트업 스페이스 (대해포 소재)에서 개최된 ‘종로구 캠퍼스타운 지역활성화 협의회’에 참석하여 캠퍼스타운 사업단, 종로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상방안을 의논하였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쇠퇴한 대학가를 지속가능한 창조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해와청년창업지원센터인 ‘킹고스타트업 스페이스’를 구축하여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여봉무 의장은 “지역 상생과 청년창업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해 주시는 학교와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며 “앞으로 종로구의회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우/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i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규정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리 버 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 포 르 투: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최광수/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전남 유치' 환영



한반도 내륙 미래기후 시작점인 전남 해남군에 유치...환영 뜻 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정부 공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전남 해남군으로 유치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과 함께, 관계 부서 유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유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유치에 힘을 보탬 바 있다.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총사업비 4천 76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전국 4개 지자체가 열띤 경쟁을 펼쳤으나, 전남도와 해남군 관계부서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남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가져왔다.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해남군에 첫 대규모 국가기관이 유치되어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위상 제고와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정광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전남도는 한반도 육지부의 시작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최고의 적지이기에,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며, "향후 내년 2025년까지 설립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인천서부소방서, 화재 시 GS25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드립니다!



인천서부소방서는 전국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과 GS리테일은 이달 전국 1만 6천여 개의 GS25 편의점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는 국민 누구나 24시간 사용 가능하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진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김충남기자

## 경남도, 중국기업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투자설명회 열어

### 중국 산둥성 옌타이 소재 주요기업 30개 사 대상 온라인 투자설명회

경상남도는 23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연태) 지역 소재 기업 30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상남도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등 경남도 유관기관과 중국 옌타이상무국, 코트라 청도무역관 등 중국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올해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동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해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국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설명회의 대상지역인 산둥성 옌타이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 기업들의 해외수출을 위한 제조



공장이 다수 분포해 있는 지역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항배후부지 및 인근 산업단지 소개와 지원정책, 원산지증명서 취득 절차 및 한미·한중 fta 활용방안 등을 안내했다.

경남도는 이번 설명회가 중국기업들의 경남진출에 대한 최신 투자정보 및 시장정보 공유의 장이 되는 한편, 관련 기관·기업 간 연결망을 강화하여 향후 중국기업들의 투자유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1 온라인상담 및 유선상담을 통해 투자유치를 진행해 왔으며, 투자 정보제공 이외에도 해외기업들이 국내기업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김인수 경남도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이번 온라인 투자설명회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올 11월에는 일본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광남기자

## 강원도, 2021 브릭아트 페스타 개막 충청남도, 백제문화유적 영상 공모 선정작 첫 상영



강원도관광재단은 10월 2일~4일 3일간 브릭아트 페스타 (2021 Brick Art Festa)를 개최한다. 재단은 이번 페스타를 통해 내년 개장하는 춘천 레고랜드의 분위기를 돕고, 나아가 춘천을 브릭의 성지로 만들어 코로나 이후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고 한다. 페스타의 개막식은 10월 1일 19:30 강원장작개발센터 진행되며, 스톱션 상영, 콘테스트 시상식, 300대의 드론 라이트쇼 등이 개막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역의 관광 유관업체도 대거 페스타를 지원한다. 레고랜드 코리아, 삼악산 케이블카, 남이섬, 강촌레일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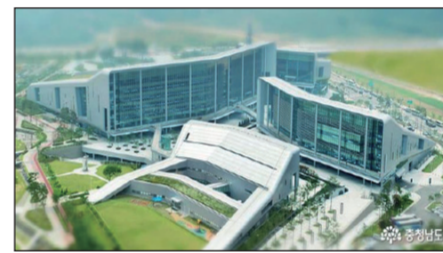
제이드 가든, 알파카 월드, 옥산가, 비발디파크, 갑자밭, 엘리시안 강촌,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FC, 조르단 등에서 적극 후원한다. 후원사의 입장권과 숙박권은 행사장 내방객 SNS 해시태그 이벤트 경품으로 활용된다. 또한, 재단은 페스타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홍보하며 페스타를 통한 지역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이번 페스타의 백미는 브릭 작품 전시로서 11명의 대한민국 대표 레고 작가들이 전시를 위해 춘천에 모인다. 아울러 범이공이를 주제로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포함하여 사전 콘테스트 수상작들도 전시되며, 7만 개의 브릭을 사용하여 춘천 레고랜드 전경을 축소한 파크모델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 예정이다.

지난 9월 13일 프로그램 참여 사전 예약은 오픈 이틀 만에 주요 프로그램이 매진되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 예약을 9월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예약하지 못하더라도 페스타 행사장에 내방하면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레고 스타터 팩 기념품을 증정하며, 현장 참여 프로그램, 전시 관람, 경품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어 다양하게 페스타를 즐길 수 있다.

이동원기자

### 오는 25일부터 백제문화제 행사장 도·나라현 홍보 공간서 공개



충남도는 오는 25일 개최하는 제67회 백제문화제에서 '우리 동네 백제문화유적 유시시(UCC) 공모전' 최종 선정작 6개 작품을 상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백제문화유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 유시시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으며, 도와 일본 나라현 우호교류협정 체결 10주년 기념 문화교류 행사로 마련했다. 도와 나라현은 양 지역의 백제 관련 문화유적을 홍보하고, 양 지역의 교류 활동을 도민과 공유하고자 공모전에 이어 이번 백제문화제에도 공동 참가하기로 했다.

도와 나라현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대 조성하는 백제문화제 행사장의 별도 공간에서 공모 선정작을 상영하

고 도와 나라현의 우호 교류 활동 및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영하는 선정작은 △나라간 공통점, 우리의 백제문화(이태경,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우리 동네 백제로 떠나요 - 백제로의 여행(이지아, 상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찬란한 백제의 시간 속으로(최민준, 충남드론항공고 드론비즈과) △무령왕릉을 찾아(정서진, 한국케이팝과 케이팝공연예술과) △백제이야기!! 백제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자!(정서연, 충남드론항공고 드론비즈과) △백제의 미소, 우리의 정신(안수아, 충남외국어고 영어과)으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드론 촬영 영상 등이다.

또 나라현립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나라현 내 백제 관련 장소를 소개하는 동영상 2편도 공모 선정작과 함께 상영한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공모전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나라현과의 교류·협력은 양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공통 분모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양

최정근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서울시, 174개 공공시설 '이동약자 전용 지도' 개발...최단경로·편의시설 한눈에

## 고령자, 장애인, 육아부모 등 위한 스마트서울맵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울시가 고령자나 장애인, 유아차를 이용하는 육아부모 같은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개발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174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정보는 물론, 대중교통에서 시설까지 최단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스마트서울맵'에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이트 내 도시생활지도 →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서울무역전시시장(SETEC),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174개 공공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아이콘 등 시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시설을 지도에서 선택하거나 시설 이름을 검색한 뒤 '보행로 정보'를 선택하면 인접(500m) 지하철역에서 해당 시설까지 휠체어 등으로 접근 가능한지 여부와 최단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 정보'를 선택하면 수유실, 장애인화장실 등이 이용 가능한지를 지도상에서 아이콘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어르신과 장애인, 육아부모 등 이동약자들에게는 도시 내에서 이동하

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방문 예정 시설의 편의시설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수탁기관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1월 지도 개발에 착수, 약 5개월 간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함께 174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구, 장애인주차장,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 유무와 이용 가능여부 등을 조사하고, 시각화 요소를 추출해 접근성 정보 지도를 제작했다.

시는 이번 174개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시각각 변하는 시설현황이 지도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통해 지도 정보를 최신화한다며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174개 시설은 시 소유 공공시설 가운데 공공성이 높고 시민이용 빈도가 높으며 이동약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선정했다.

유도별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1개 ▲문화 및 집회시설 30개 ▲판매 및 영업시설 19개 ▲운동시설 11개 ▲의료시설 11개 ▲관광휴



게시설 4개소 ▲공공용시설 3개소 ▲숙박시설 2개소 ▲그 외 수련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각 1개소이다.

174개소 외에도 지난 해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시민참여형 데이터수집단'을 운영해 조사한 서울시 426개 동(洞) 주민센터에 대한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구축한 지도 정보를 개방해 향후 민간 기업 등에서 활용해 앱 개발 등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접근성 정보 시각화의 3대 원칙과 표준 매뉴얼도 수립했다. 스마트폰 환경이 반영된 정보 표기 방식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향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공시설에 이 매뉴얼을 적용해 시민들이 시설의 내부 편의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접근성 정보 시각화 3대 원칙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표기 ▲정보표현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 ▲정보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이다.

표준 매뉴얼은 스마트폰에서의 이용성 및 가독성 등을 고려한 세부 표기 지침, 정보 지도 제작 절차

와 표기 방식, 그림문자 활용을 담고 있다. 정보 지도의 경우, 실제 공간의 형태와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방문자 진입 방향과 일치시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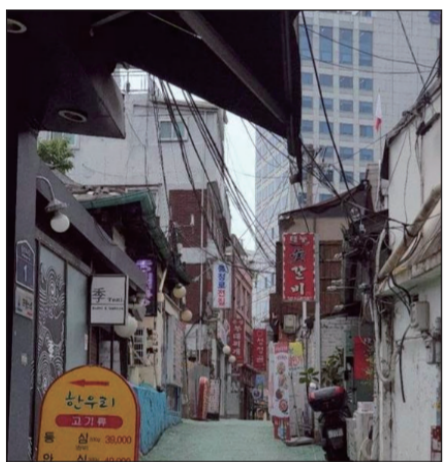
한편,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 구축 사업 추진 배경, 과정 및 결과, 접근성 정보 지도 제작 표준 매뉴얼 등을 담은 종합 보고서도 열람 가능하다.

접근성 정보지도 제작 및 활용, 서비스 지역 및 대상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동약자들은 공공시설을 방문하기 전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접근하기 편리한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정보가 산재돼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진화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상황을 시각화된 정보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다. 이동약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시민사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서대문구 공공재개발 준비위, SH공사와 지원 약정 체결 강동구, 찾아가는 e(에너지)클래스 운영



서대문구는 관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두 곳(연희동 721-6번지 일대, 총정로3가 281-11번지 일대)의 준비위원회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최근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25% 이상의 주민 동의로 선정된 임시 주민대표기구로 과거 중단됐던 민간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을 통해 추진한다.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2011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사업 일몰제에 따라 2015년 구역 해제됐

다. 총정로3가 281-11번지 일대는 2009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지난해 시행된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합동 공모'에 이 두 곳의 주민들이 응모해 올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약정을 통해 초기자금과 운영경비를 SH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사업 추

진 가능성이 전망이다. 향후 SH공사가 서대문구에 구역지정 입안 신청을 하면 구는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정체됐던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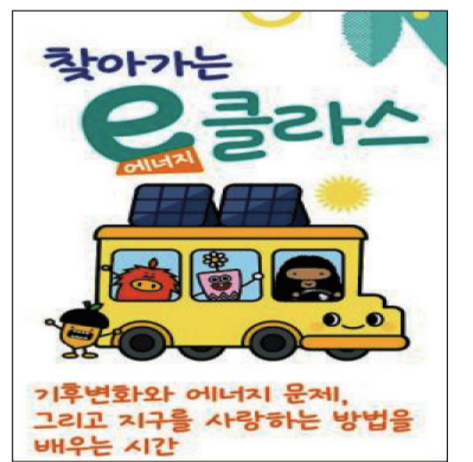
조상순기자

강동구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에너지 절약 방법 및 에너지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e(에너지)클래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e클래스'는 교육용으로 특수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학교로 찾아가 에너지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소규모로 안전하게 에너지 교육을 제공할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태양광 자동차 키트 조립, 태양광 LED 등을 활용한 '햇빛 클래스' ▲자전거, 줄넘기 발전기 등을 이용한 자가 동력 발전 교육 ▲기후·에너지 관련 영상 교육 등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지



속가능한 사회의 주요 위험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찾아가는 e클래스'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당면해 있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 도봉구 온(溫)라인 사회적경제 장보기, "가치로가게"에서

붕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와 주민의 사회적경제 공감대를 넓히고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오픈마켓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진행한다. 라이브커머스 랩 등의 플랫폼에서 상품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판매 형식을 뜻한다.

먼저, 구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도봉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가치로가게'를 운영한다. 마지막 이틀인 10월 14~15일 동안은 '가치로가게'의 베스트상품을 모아 '네이버쇼핑 라이브'에서 특별기획전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총 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여 친환경 면제품 DIY 미술키트 양말 소가구(도마 등) 공정무역 커피 마을 여행상품 놀이교육 서비

스 등을 판매한다. 구체적인 판매 품목과 기업명은 10월 1일부터 '가치로가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역 주민들이 질 좋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들을 꾸준히 생활 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 창동 이마트와 연계한 할인특판전도 마련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손쉽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한마당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는 온라인 판로 개척의 기회가, 주민에게는 사회적경제 장보기라는 신선한 경제활동의 시간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개관 기념 행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최초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해 건립한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선학중학교 내 교육문화복합시설) 개관 기념 행사를 17일 개최했다.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은 선학중학교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총 시설비 70억(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연수구청 14억, 인천시교육청 35억 부담)의 예산을 들여 2019년 10월부터 설계 착수에 올해 6월 준공된 지상 4층 규모의 교육문화복합시설이다.

마을주민과 교사·학부모·학생 등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으로 1층은 마을카페와 목공방, 2층은 마을부엌과 강의실, 회의실, 그리고 동부권역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3층은 동아리실과 음악연습실, 무한상상실, 4층은

체육활동실과 100여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있다.

개관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여과를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온라인 생중계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다.

선학중학교 김 찬 교장선생님의 건립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서정호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교사 대표, 마을활동가 대표, 학생 대표, 지역 청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의 첫 문을 마을이 함께 열어가는 모습이 인상깊다"며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자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고양 아람누리도서관, 동양철학 강의 '교(教) 스승 그리고 가르침' 개최

고양시 아람누리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독서아카데미 수혜기관으로 선정돼 '지식을 여는 10가지 키(key)'의 시3를 진행하고 있다. 시3의 두 번째 강연 10월 1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강의는 철학박사 한재훈 교수가 맡았으며, '교(教) 스승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제목 하에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고 스승이 수행하는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를 동양철학적 사유로 성찰한다.

한재훈 저자는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양철학과 동양고전을 바탕으로 인문학강의를 진행한다. 저서로는 서당공부, 오래된 인문학의 길 등이 있다.

이번 강의는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연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아람누리도서관은 이번 강의 외에



도 10월 중 최인훈의 광장과 박완서의 나뭇을 다루는 서평가 로자의 한국문학수업, 박진열 중앙대 명예교수의 '옛 지도와 현대 지도로 읽어내는 고양(高陽)의 길' 등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 경기도, 가을철 맞아 시군과 함께 자전거도로 4,986개 노선 안전 점검

## 도내 자전거도로 총 4,986개 노선 등 대상



경기도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2021 가을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길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북한강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등을 포함해 도내 4,986개 자전거도로 노선 총 5,480km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와 시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

전거도로 파손여부, ▲자전거 안전표지 설치상태, ▲노면 배수시설 및 구조물(교량, 데크 등) 파손여부,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센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단순 이상사항 발견 시 신속하게 관할 자전거도로관리청을 통해 개선 조치토록 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자전거도로관리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코로나 19시대에 가능한 실외 비접

촉 체육활동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민의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향상과 쾌적한 편의 증진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안전점검과 더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 오산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실시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오산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집중 점검에 나섰다.

오산시는 지난 16일 오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오산역과 협조해 유동 인구가 많은 오산역환승센터, 오산대역 및 오색시장의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은 "이렇게 불법촬영 점검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니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안함이 줄어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담인력을 채용해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어울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피해상당, 피해영상 삭제, 수사연계 지원 등이 가능하다.

김남주/기자

# 대구시 2021 국가안전대진단, 노후·위험시설 위주 집중점검!

## 노후·위험시설물 148개소의 구조적 안정성 등 집중 점검



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대구 국가안전대진단 중점점검대상 시설은 중앙부처 선정기준과 시민들의 설문조사,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노후·위험시설 148개소를 선정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실시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드론 등 첨단 기술과 시설별 안전점검가이드를 활용해 수준 높은 점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수칙'을 만들어 배부했다. 중점점검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별 안전점검가이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문화운동 성격인 국가안

전대진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 집과 내 집포는 스스로 점검합시다'와 같이 자율안전점검의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방송매체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홍보용 마스크 1만개와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6만부 제작 배포했다.

아울러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용 안전점검표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표를 내려받아 자율안전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시민이 직접 위험요인을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적극 홍보해 안전한 사회문화조성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항은 담당부서에 분류돼 현장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하고 결과는 신고자에게 알려주어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더불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반'을 편성해 관리주체별 대진단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해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확인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 등 긴급히 보수조치토록 해 안전 사회를 도모하고, 특히 점검실명제로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는 시민에게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채흥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 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사회전반의 안전수준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문화운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호/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 및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노력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여부 ▲불법광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여부 ▲인접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여부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여부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업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질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건축물 이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중점 단속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업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광남/기자

# 양평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실시

양평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양평경찰서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불법촬영기 탐지활동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장소는 관내 휴게소와 역 및 터미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불법촬영 및 보복성 성착취 영상물 유통을 근절하고 성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전파탐지기와 적외선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해 소형 카메라가 주로 설치되는 곳을 집중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기간 불법 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초부터 양평군 관리 공중화장실 115곳에 대해 불법 촬영기 수시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성윤/기자

# 고성군, 가을장마 및 태풍대비 취약지역 일제점검



고성군은 가을장마 및 태풍대비 취약지역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7일 김문기 부군수를 총괄로 침수우려 취약도로 및 주택 및 상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1년 가을장마 및 태풍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자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 관내 취약(침수우려)시설에 대해 침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으로,

전수 조사결과 관내 총 19개소(반지하 주택 3개소, 지하상가·공장 및 지하 시설 1개소, 침수 우려 취약도로 15개소)가 취약한 곳으로 파악되었다.

군 관계자는 가을장마 및 태풍대비 취약지역 일제점검을 통하여 침수 우려 취약도로 및 주택 및 상가시설에 대하여 피해 예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도 예산반영으로 항구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원/기자

# 고양시 덕양구, 소음유발 및 불법개조 이륜차 합동 단속 실시



고양시 덕양구가 지난 9일과 16일, 관내 소음유발 및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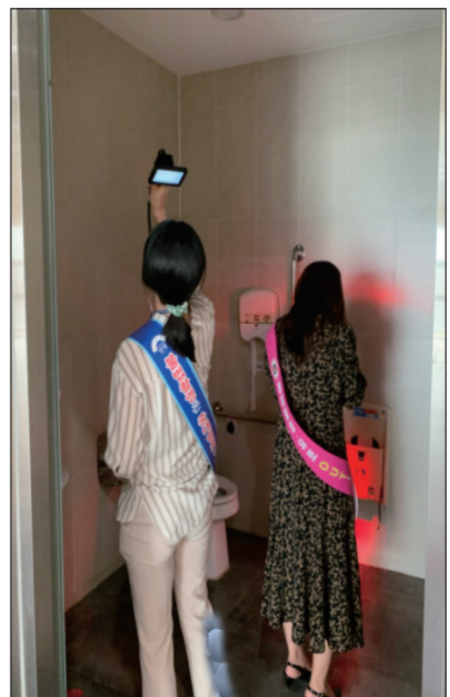
일 동산동 세솔다리, 16일 동세로에서 합동으로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불법 부착물 ▲미승인 등화설치 및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다.

이들 동안 벌인 합동 단속으로 약 70대의 오토바이를 검문, 이 중 기준치를 벗어난 4건을 적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기관 간 연대를 강화하고 이륜차 소음유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불법행위 근절과 정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덕양구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와 고양경찰서(경비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은 지난 9



# 울산 남구, 2021년 3/4분기 건축공사현장 도로점용 이행실태 점검 추진

제주시 서부지역 소재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21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의 정도에 맞는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전문정비업에서 정비책임자 선·해



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징금 30만원,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과징금 100만원, 작업범위 위반행위는 사안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도에는 시정조치 7건, 과징금 4건에 1백 6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김기현/기자



# 강화군 유천호 군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강조



## 부서별 현안사업 점검, 주민 눈높이 행정 당부

강화군은 23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부서별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전군민 독감예방주사 등 방역대책과 창업일자리센터 사업보고 등을 겸한 자리였다.

유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상황별로 잘 대처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연초 계획

했던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청년 창업과 청·장년 맞춤형 지원을 지원해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기회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날 것을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강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며 “적극 행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 평택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의 날 기념 '희망메세지 캠페인' 실시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치매극복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치매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로, 평택시는 매년 치매극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남주기자

이번 행사는 ▲지역나무-희망메세지 캠페인 ▲온라인 희망댓글 챌린지 등으로 진행되며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평택치매안심센터 내 '지역나무-희망메세지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정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제공,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치매파트너 양성 등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김남주기자

#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안성관내 12개 기관과 추석 명절 나눔 '사랑의 송편 나누기'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은 안성관내 12개 기관과 함께 2021년 추석 명절 나눔 '사랑의 송편 나누기' 사업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본 행사에 참여한 서안성라이온스클럽은 1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하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으며, 낙원·야양·봉남·참사랑·광신·참아름·서운·삼정어린이집, 안성초병설유치원, 공동초등학교, 안성성결교회는 송편을 만들 쌀을 모금해주었다.

이석서 서안성라이온스클럽 회장

은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방문하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고맙다고 말하니 보람이 느껴지고 힘이 난다.”고 전했다.

정행건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특히 고사리손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동참에 가슴이 뭉클하였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안성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년 잊지 않고 복지관 명절 사업에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 추석 연휴 현장 근무자 격려하고 당부 전해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 불편함 겪지 않도록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이날 처인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용인서부경찰서 수지구대, 용인소방서 구갈119 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추석 명절에도 업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빵과 음료 등 간식을 전달했다.

또 연휴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백 시장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과 17일에도 관내 위치한 군부대와 경찰서 등을 방문해 지역 안보와 치안유지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관계자들을 위문했다.

백 시장은 “추석 명절에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광명시, '좌석 버스 3000번 신설' 광명동~KTX광명역 직행 ` ` ` 이동시간 절반으로 줄여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 참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9월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회의에 참석했다.

광명시는 광명7동에서 KTX광명역까지 운행하는 3000번 직행 좌석 버스를 신설하여 10월 1일부터 운행한다.

기존 일반 버스를 이용해 광명7동에서 KTX광명역까지 가는 경우 30개 이상의 버스정류소 정차로 40분 이상 소요됨에 따라 KTX광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3000번 직행좌석 버스는 광명7동 화영운수차고지 기점에서 출발,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우체국사거리 등 중요 환승 정류소만 정차함에 따라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KTX광명역 이용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5대로 운행할 예정이며, 요금은 성인 2,800원(카드기준)으로 환승할인도 가능하다. 배차간격은 약 20분~30분으로 첫차시간은 기점 시간보다 4시30분, 막차시간은 23시30분이다.

특히 이번 3000번 버스 신설은 지난해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더 큰 의미가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00번 직행 좌석 버스 신설은 지난해 500인 원

탁토론회에서 시민이 제안해 온라인 투표결과 2위를 얻어 결정된 사업이다. 앞으로도 시민 한분한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더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000번 버스 신설 외에도 최근 빗물받이에 관리번호를 부착해 도로 침수 시 복구 시간을 단축한 사업도 시민이 제안한 의견으로 광명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등을 마련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제4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7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제4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가 교육감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장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인천교육을 만들려는 인천시교육청의 소통 정책중 하나로, 올해로 4회째다.

지난 3회까지 광장토론회에서 338건의 정책제안이 있었으며, 228건이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추진되고 있다.

이번 제4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는 새로운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도입해 가상 공간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1부는 지난 광장토론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그간 광장토론회에 보내준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의 마음

을 전하며, 코로나19를 겪는 우리 교육가족의 사연을 통해 감동을 나누는 다.

2부는 사전 접수 신청을 마친 시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만난다.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참가자들은 광장토론회의 다양한 가상공간 부스를 체험한다. 주제별 토론회에서 인천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하고 실시간 정책제안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가상공간 속 토론장에서는 참가자와 교육감의 아바타가 서로 토론하며 정책을 제안한다.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 의정부 2030청년 111인 제2회 청년의 날 기념, 희망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안전과 행복해질 권리를 보장할 청년 정책의 선도주자, 이재명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의정부 2030 청년 111명이 청년에게 희망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다.

전국·전연령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의정부 2030 청년 111명이 18일(토) 오전 11시 의정부시 소재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앞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생의 첫 투표권이 주어진 만 18세 청소년부터 2030 세대의 주인공인 대학생, 취준생 등 의정부 청년 111명은 지지선언에서 “포용적 대전환으로 청년 생애주기 전반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선 후보,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대학에서는 등록금과 생활비로 끼니를 걱정하며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고 있으며, SNS 불법사금융,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 등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청년으로서의 고통을 호소했다.

박종민 의정부 2030청년 111인 공동대표는 “불공정과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지고, 끝내 젊은 청춘이 목숨을 놓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라며 “대물림되

는 반칙과 특권, 능력과 자본에 의존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젊은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비극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원희 공동대표는 “누구도 청년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던 2015년,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은 청년 배당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제시했고, 2021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등의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며 “그 누구보다도 청년 정책의 선도주자로서 우리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안전과 행복해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맞이하는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3째주 토요일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기에 이번 의정부 2030청년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조혜영기자



# 안양시, 가상공간 청년캐릭터들이리 뛰고저리 뛰고 흥미만발

## 최대호 안양시장, “‘청년’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이자 주역”

안양시가 17일 '2021년 안양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팬데믹 시대에 부합하는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활용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청년의 날은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바로 청년의 날이다. 시는 이에 맞춰 추석연휴 전날인 금요일을 '안양청년의 날' 축하행사로 진행했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특히 안양시와 지역 청년층이 주축인 안양시청년정책위원회가 주최·주관해 청년을 위한 날을 청년이 준비했다는 의미가 있다.

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사회자 역시 캐릭터가 대신했다. 연성대학교 응원동아리 '금빛세'의 율동



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단체 등 지역 청년 30여 명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캐릭터를 설정해 행사에 참여했다

안양시 청년상 시상식과 '보통의 시민이 보통의 청년에게'로 라는 테마로 응원메시지도 가상의 공간에서 흥미롭게 연출됐다. 청년정책위

원회가 최대호 시장과 시 공무원들에게 '청년시기를 겪었을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자 한다.'는 문구의 카드를 직접 전달하는 깜작 이벤트도 마련됐다.

특히 제3회 안양시 청년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사진과 함께 캐릭터가 가상의 무대에서 상장을 수상하고 감사의 절을 했다. 수상소감은 각자

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전하며 유튜브로 흘러나왔다.

청년상 수상자는 △봉사부문 이지훈 평안지구대 경장 △산업경제 부문 임성현 (썬스코리아 대표 △문화예술 부문 안기복 아네눔양상블 대표 △체육 부문 김형진 FC안양 선수 △미래인재 부문 박 훈 한마음과 학원 교육연구팀장 등이다.

최대호 시장도 온라인상에서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수상자들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청년들을 향해서는 "무엇인가를 시도해보지 않은 청년은 청년이 아니다. 청년 그 자체가 새로운 시대이자 주역이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행복도시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 해 청년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부기자

# 부평구립삼산도서관, 문화의 달 맞아 '삼산LIB축제' 진행



부평구립 삼산도서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매년 '삼산LIB 축제'를 진행한 삼산도서관은 법정문화도시 부평을 기념해 로컬(Local: 문화를 여는 부평), 인터페이스(Interface: 미래를 여는 도서관), 북(Book: 책으로 통하는 우리) 등 'L.I.B.' 세 가지 주제로 지역의 문화와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삼산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책 읽는 것과 함께 '문화스텝 투어', 직장인들을 위해 퇴근 후 집에서 즐기는 '문화회식', 앱을 활용해 비트와 음악을 작곡해보는 '방구석 음악가' 등 지역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는 10월 13일은 근래 들어 전 세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메타버스(mataverse)'에 대해 '메타버스 비긴즈' 저자인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실장으로 부터 풍부한 사례와 미래변화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10월 27일과 29일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직접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별도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슈링클스를 활용한 '나만의 북케 만들기', '방랑이와 도서관 산책',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관과 연계해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고체 주방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 도서관 신규회원 가입자를 위한 '두근두근 처음 도서관', 정기간행물 과월호 배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중남기자

# 인천시 청년지원 정책 기틀 마련 나서



인천광역시시는 9월 29일 오후 2시 '청년 일자리 개선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지원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과 박형룡 균형위 정책조정실장, 정성민 인천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과 인천 청년 15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을 나눌 예정이다. 인천시의 '인천시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과 균형위의 '지역과 청년을 잇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 이후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유토론을 진행해 인천 청년과 균형발전정책과의 거리를 좁히고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부의 청년 취·창업 정책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지역 유출 문제에 대응 할 것"이라며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첨단산업(BIO, PAV, MRO 등)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균형에 맞춘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지자체와의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추진 중인 균형위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순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청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청년 의식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중남기자

# 오산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오산시-베트남 팡남성 영상회의 개최



오산시는 지난 17일 국외 자매도시인 베트남 팡남성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는 과상옥 오산시장과 레 쩌 타인 팡남성 인민위원장 및 경제, 체육 분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 단체장의 인사말씀, 그간 교류 현황 보고, 향후 교류방안 논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부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첫 대면을 한 양 도시의 단체장들은 인사를 나누는 후 향후 두 도시의 교류 사업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과상옥 오산시장은 "지난 20년간 상호 신뢰를 통해 꾸준히 이룬 그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양 도시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 도시 시민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비록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양 도시의 대면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영상회의 등의 새로운 형태의 교류 활동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응원 영상', '신년 인사 영상'을 제작해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일본 자매도시인 히다카시와도 영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만남을 추진했다.

# 안양문화예술재단, '트로트대전 in안양' 평촌아트홀에서 9월 25일 공연



안양문화예술재단은 9월 25일 오후 5시 평촌아트홀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공연시대' 공연으로 트로트 가수 윤서령, 영기, 박세욱, 숙행과 함께 '트로트대전 in안양'을 공연한다.

경기도는 매일 마지막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이 속하는 주간을 '경기도 문화 주간'

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경기도와 안양시의 지원으로 지역 밀착형 공연을 해당 주간에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구성지고 예상적인 느낌을 주는 정통 트로트부터 춤과 함께 흥을 불러일으키는 신나는 곡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공연한다. 특히, 안양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박세욱이 출연해 '돌비돌비'와 '대전블루스'등을 춤과 함께 선보인다.

최근 '척이면 척이지' 싱글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윤서령과 개그맨과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 아웃렛의 리더 영기, KBS '불후의 명곡', MBC '복명가왕' 등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숙행이 출연한다.

예매는 코로나 19 공연장 방역지침에 따라 1인 2매만 전화로 예매 가능하며, 객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운영하고 있다. 공연관람은 만7세 이상 가능하며, 전석 무료다.

최정부기자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의 자연을 가감  
조지훈과 주실마을

길  
책과 펜이 그려준  
이름 없는 길  
영양문화재단 2020년 11월 10일

빛  
책이 그려준  
이름 없는 빛  
영양문화재단 2020년 11월 10일

심  
자연과 벗하던 심의  
영양문화재단 2020년 11월 10일

맛  
사뭇바를 아꼈던  
반가의 레시피  
영양문화재단 2020년 11월 10일

심  
자연과 벗하던 심의  
영양문화재단 2020년 11월 10일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영양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촉박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학교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계수석야생화전시관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CULTRUSO, 영양문화재단







# 하동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가을철 산악구조 훈련



하동소방서,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와 화개면 대성리 일원에서 합동 훈련 실시

하동소방서는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신속 대처를 위해 지난 16일 화개면 대성리 일원에서 지리산국립공원 하동분소와 함께 가을철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악사고 현장 맞춤형 구조 기법 공유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 △산악사고 특성 및 인명구조 기법 △드래그 시스템 활용 수평도하 △심폐소생술 및 부목 고정법 등 응급처치 훈련 등으로 이뤄졌다. 조현문 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탐방객 및 산행인구 증가와 함께 산악사고도 느는 만큼 안전한 산행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등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창원시, 내달 1일 '온라인 복지박람회' 개최

창원 복지넷 홈페이지 운영,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 진행

창원시는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복지박람회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플러시 창원! 누리는 복지! 행복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원시 주최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리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10월 1일부터 11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복지박람회는 인터넷 주소창에 창원복지박람회 또는 창원복지넷을 입력하거나 유튜브 검색창에 창원복지박람회 입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10월 1일 개최식은 오후 2시 시민

홀에서 개최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고, 이어 복지기관 생산품 소개 방송(라이브쇼스튜디오)도 이어진다.

같은 날, 오픈되는 창원복지넷 홈페이지는 온라인전시관(92개의 기관홍보관, 복지기관 생산품, 복지영상상시전시, 시민참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지기관들의 사업과 활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 기간동안 37개의 사회복지기관이 직접 만든 홍보영상과 26팀의 사회복지봉사자,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창원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스피치 영상을 송출해 다

양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많은 시민참여 이벤트가 진행되며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스피치 영상 참여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온라인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새로운 시도로 진행되는 창원시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이번 온라인 복지박람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울산시, '화·목한 약사동 제방마을 공방 이야기'

10 ~ 12월, 유아 단체 교육 참가자 모집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단체 교육인 '화·목한 약사동 제방마을 공방 이야기'의 4분기 프로그램으로 '약사동 제방이 빛나고 있어요'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를 관람한 후 제방과 관련된 품목을 포일아트 방식으로 표현해 투명엽서를 만들어 보는 체험이다.

운영 시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둘째·넷째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오전 11시 각각 2회씩이며, 회당 40분 정도 소요된다. 행사 장소는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6세 이상으로 구성된 어린이 단체로, 신청기관 소속 체험 보조 인력 2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울산시 공공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약사동 제방에 대해 이해하고, 예쁜 엽서를 만들

어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약사동제방유적은 삼국시대 말부터 통일신라 시대 초에 만들어진 고대 수리시설이다. 가공된 기초 지반 위에 점성이 높은 실트층과 패각류를 깔고, 얇이 달린 나뭇가지를 이용한 부엽공법 등 고대 토목기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국가 사적 528호로 지정되었다.

김기현/기자

# 조근제 함안군수, 시설하우스 강풍 피해현장 점검

조근제 함안군수는 23일 오전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한 군북면 월촌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함안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경 순간최대풍속 18.6%의 강풍으로 군북면 월촌, 범수면 강주·백산 일원 26농가 시설하우스 83여 동의 비닐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로 수박, 멜론 등 재배농가의 피해

가 컸다. 군은 23일 피해량의 80% 정도를 복구하고, 수박 정식 후 피해가 큰 농가는 재해보험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근제 군수는 “피해 농가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복구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북구 휴먼라이브러리, 경영학 강연으로 구민과 소통한다



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1 북구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초대석'의 일환으로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독자와 나누고자 추진되었다.

부산대학교 홍태호 교수 등 4인의 경영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와 경영 △같이경영, 가치경영 △생활 속의 마케팅 △부동산,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지역주민에게 대학의 수준높은 경영지식과 다양한 실무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9월 23일부터 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차별 15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정명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전문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경영학 특강을 마련했다”며,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영 지식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경남교육청, 다가지 토요일 프로그램 '꿈길, JOB多!' 운영

경상남도교육청은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가지 토요일 프로그램 '꿈길, JOB多!'를 운영·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꿈길, JOB多!」는 중학교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소그룹을 형성하여 고등학교의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내 7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학교별 다양하게 준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경남의 다문화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친구들과 함께 참여 가능하며, 구급품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 운영된다.

제과실습과 바리스타실습을 체험하는 경남관광(창원)과 외식조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유망직종인 스마트팩토리 체험 등을 하는 경남산업(거제), 김해생명과학고 등은 빠르게 신청이 마감되어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의 어울림 통합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진로 적성탐방으로 학생들의 실제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다가지 다함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남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보여준다. 중등 프로그램 외에도 다문화 학생 가정을 위한 초등 다가지어울림 프로그램도 10월 16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정명희 진로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요즘 시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가지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뜻깊은 체험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기자



#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진주 SDGs 희망등 달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개최, 진주시민의 염원모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만들기 위한 시민 문화 행동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진주 SDGs 희망등 달기'행사를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펼친다.

지속협은 가족이 함께 모여 각자의

희망을 담아 등을 만들고 더불어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희망등 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0여 가구가 참여해 각 가정의 다양한 희망의 문구가 빛을 발하였고,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에서 잠시나마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되새기는 소중한 경험으로 참여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 접수 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개인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페이스북 북(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746-1710)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각 가정으로 희망등 키트가 우편으로 배부되고, 각 가정에서는 희망등을 만든 후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희망을 담아 SNS에 인증샷을 게시하면, 평가 후 우수자에게 3만원

부터 20만원까지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찾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희망등 달기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속협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위해 진주시의 정책을 평가하고 자문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2019년 1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등 50명의 위원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도시생태, 교육문화, 녹색기업, 마을공동체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100명과 함께하는 원탁토론회 개최, 지속가능발전목표 바로알기 협력포럼, 진주시민 자전거 출퇴근 함께하기, 그린리더 진단 및 컨설팅 사업, 지속가능한 진주 SDGs 희망등 달기 행사 등 다양한 민관협력 행사를 추진해왔다.

최광용/기자

# 함안군, 2021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함안군은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내 사육중인 소, 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하반기 구제역 방역사업을 예정보다 한 달여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남 흥성에서 구제역 감염원체(NSP)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구제역 유입방지와 차단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소 약 1만 6000여 두, 염소 약 2000여 두 등 1만 8000여 두이다. 소규모 농가 및 염소농가는 관내 공수의사를 통한 무상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며, 축산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백신공급을 통한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함안군은 일제접종 이후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해 항체형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조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동물방역담당 관계자는 “우제류 사육농가는 이번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기간 내 접종을 반드시 마쳐 우리 군이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방역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 광주광역시서구,내년도도시숲 조성사업비 26억여 원 확보

## 미세먼지 없는 보다 질 높은 녹색 서구 구현

광주광역시서구가 '숨 쉬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2년도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26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단위 사업별로는 미세먼지 차단숲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각각 10억원과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에 6억원, 스마트 가든 조성 3천만원 등이다.

서구는 민선 7기 구정 방침인 '숨 쉬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그동안 스마트 녹색쉼터, 옥상정원, 미래숲 조성, 담장허물기사업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해왔다.

이번 국·시비 확보는 「서구형 그린 뉴딜 탄소중립도시 2045」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도시숲 사업



으로, 서광구역 철로 주변에 저감 효과가 큰 수종을 심어 소음공해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사이에 피폭지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가로

경관 향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치평동 운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행자도로 550m 구간에 색채가 있고 학습효과를 겸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 아름답고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게 된다.

또한, 서구보건소 내에는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공공의료진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도 심신의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수종을 식재하고, 식물 생육상태에 따라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자동관수장치와 스마트폰으로 유지관리하게 되는 스마트 가든을 조성한다.

이렇게 서구청사 등 공공건물을 생활밀착형 녹색 건물로 변화시킴으로써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정원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자연과 공존하면서 숨 쉬는 삶은 시민의 권리이며, 앞으로 조성될 도시숲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 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 10% 할인 연말까지



화순군이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 할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애초 9월까지 10%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위축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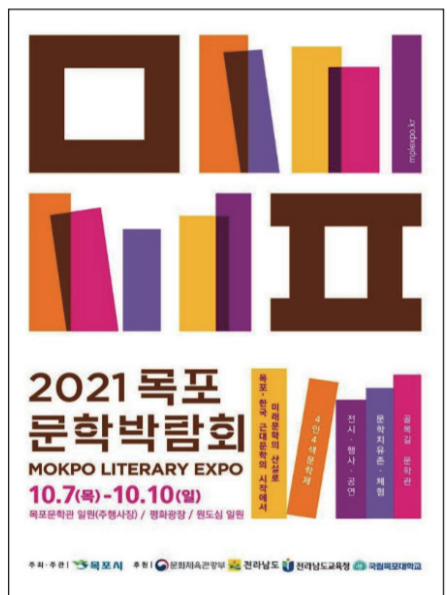
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등 지역 26개 업무 대행 금융기관에서 화순사랑상품권 구매와 환전을 할 수 있다.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인 화순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카드 발급과 상품권 충전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화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목포문학박람회, 시민이 주인공인 프로그램 눈길



'2021 목포문학박람회'가 시민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문학을 주제로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목포문학박람회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화관 일대, 원도심, 평화광장 등 목포 전역에서 전시, 행사, 공연 등 10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배를 형상화한 목포문학호를 타고 목포·남도·한국문학을 향하는 주제관, 최첨단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9개의 전시관, 한국문학의 거장들을 집중 조명하는 4인4색문학제, 골목길 문학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

득하다.

문학박람회는 시민이 관객이 아닌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예향 목포 시민 시낭송대회'다. 목포문인협회가 시낭송대회는 목포 지역 최고의 시낭송가로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서툰 아마추어 시낭송가로 시작하지만 대회를 통해 목포 최고의 시낭송가로 거듭날 수 있는 시민 시낭송가 육성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 기간은 9월 2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학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년 전 극작가 김우진이 살았던 동네의 골목길에서는 주민이 배우로

연극 무대에 선다. 김우진의 대표작인 '이영녀'가 그것으로 목원동 골목길 문학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목원동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는데 연습 과정이 라디오 방송에 소개되는 이색적인 시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목포시문화회가 삼학도 크루즈선에서 '선상 시낭송회'를 진행해 황홀한 밤바다에서 시를 낭송하며 감성을 자극한다.

시 관계자는 "목포문학박람회의 주역은 시민이다. 문학박람회는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하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문학박람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 무안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 소일거리 기반 조성 및 품물교육으로 활력 증진



무안군은 지난 15일 몽탄면 노송정 마을에서 마을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회는 사업 추진현황 설명, 소일거리 시제품인 조청·쌀엿 가공장 관람, 품물공연 시연, 종합도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마을대표인 서춘근 이장의 사례발표를 통해 사업 소득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과 단

순 가공을 특화한 시범사업이며, 무안군은 올해 노송정 마을을 대상으로 조청과 쌀엿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여가 프로그램인 품물교육을 25회 진행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을 어르신들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다함께 웃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촌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장성군, 향기와 아름다움 전하는 '꽃차 전문가' 양성

## 식물 자원 활용한 다방면 활동 기대

장성군민 18명이 꽃차 마이스터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장성군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군은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꽃차 마이스터 자격증반 수료식을 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꽃차 전문가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꽃차는 꽃을 원료로 한 차(茶)로, 꽃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향기와 빛깔을 지닌다. 이번 꽃차 마이스터 자격증반 과정에서는 꽃차의 특성과 만드는 법, 마시는 법부터 꽃차 블렌딩, 시럽·음료 제작에 이르기까지 꽃차에 관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됐다. 지도는 송희자 협회장(사단법인 꽃차문화진

흥협회)이 맡았다.

교육 기간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총 10회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18명의 장성군민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해, 꽃차 관련 창업 및 교육이 가능해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유두석 장성군수는 "엘로우시티 장성은 사계절 향기로운 꽃이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농촌"이라면서 "장성 최초로 배출된 꽃차 전문가들이 식물 자원을 활용한 꽃차 산업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추후, 꽃차 마이스터 교육 이수생들과 함께 장성노란꽃차연구회를 구성해 꽃차 연구와 기술 개발 등을 이어가자는 한편, 축제 기간에는 꽃차 작품 전시와 꽃차 체험, 판



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홍곤/기자

# 광주시교육청, 2022학년도 광주예술중 신입생 입학설명회 개최

##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5일 광주 예술고

예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면 방식으로 2022학년도 광주예술중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예술중 설립은 광주예술고 이설과 함께 추진됐고, 최근 설립 및 이설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의 국립 예술중인 광주예술중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입학 전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학설명회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입학 전형요강 안내, 질의응답, 학교시설 탐방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석 규모를 파악했고, 약 120명 이상의 학부모가 참석의사를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을 고려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등 총 3회차로 나눠 진행하고, 회차당 인원을 45명으로 제한했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이병관 과장은 "이번 입학설명회가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광주예술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예술중 입학 전형은 오는 10월18~21일 원서접수, 11월5일 예비소집 및 면접 전형, 11월6일 실기 전형으로 진행된다.

김덕윤/기자

# 고흥군,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절주합시다!!



고흥군은 지난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터미널 일원에서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알코올(음주) 섭취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음주로 인한 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우리사회의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로 인해 마케팅 목적의 술 광고 및 예능 프로그램의 혼술(혼자 술마시기) 장면 등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요즘 음주습관에 대한 인식개선이 매우 요구되는 시점이다.

술은 친목도모, 위로, 긴장감 완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범죄, 사고, 정신적·육체적 질병 등 역기능도 많기 때문에 음주의 해로움을 알고 조절하기 위한 절주 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절주 수칙은 다음과 같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후 3일은 금주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고흥군 월간 음주율(2020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은 36.6%로 전국 49.5%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절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조기석/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 수확기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받으세요

전라남도는 가을철 수확기 농촌 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의 무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전남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6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2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지역 총 834개소, 5천322명이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대이동에 이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전남으로 상향수 외국인인이 유입될 전망이다.

가을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은 양파·마늘·겨울배추 정식, 가을배추·배·고구마 수확 등 6개 품목이다. 이 중 마늘·양파 정식과 배 수확 등은 비교적 높은 작업속도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9월 들어 다수의 외국인 노

동자가 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역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장 확인 시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백신접종 안내문도 직접 배부해 언어 소통 장애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까지 유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과 수확기가 겹쳐 농촌지역 방역상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내국인도 반드시 2주에 1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 익산썩 신동지구대, 공원등산로 안전순찰 강화

## 가을철 공원등산로 범죄 예방 활동 힘써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는 가을철을 맞아 공원과 등산로를 중심으로 우려되는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순찰을 강화함으로 주민들로부터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위치한 크고 작은 공원을 비롯하여 등산로에 대해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방범시설과 화장실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진출하여 가시적 순찰과 거점으로 안전한 공원과 등산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구대장 송태석 경감은 "가을철 공원이나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안 안전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현 익산서장은 "시기별로 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하는 장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 전라북도교육청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9월 과정활동 운영

## 임실·전주·군산·정읍 등 4개 지역에서 '줍깅' 활동 등 진행

전라북도교육청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9월 과정활동'을 운영했다.

9월 과정활동은 '걸으며 홍보해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주제로 지난 18일 임실·전주·군산·정읍 등 4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참여 대상은 청룡대 1개반·현무대 5개반·백호대 4개반·주작대 3개반 등 총 145명으로, 반별로 8~12명

사이의 소규모 인원으로 나뉘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활동 내용은 ▲임실 옥정호 마실길 걷기와 줍깅 ▲전주한옥마을에서 북 받아가기 스태프 투어 ▲한바탕 전주 객사길 역사 투어 ▲군산 문화체험 발달출 ▲내장호 수변길 줍깅 등이다.

특히 임실과 정읍에서는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

는 '줍깅'은 한국어 '줍다'와 달리다는 뜻의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국사봉-붕어섬-요산공원-옥정호 마실길을 걸으면서 줍깅을 진행한 후 모듬별 영상을 제작해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대원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 탐사를 통해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자긍심과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가 됐다"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과정활동을 통해 지역을



탐사하고 홍보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애함심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박준배 김제시장,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른 긴급 브리핑

박준배 김제시장은 9월 19일 관내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라 긴급 언론브리핑을 비대면으로 열고 시민들에게 개인 방역수칙 등 준수사항에 대해 당부하였다.

관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입소어르신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고통으로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집단 거주 특성상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조속히 감염원을 찾아내고 코호트격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추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요양원의 집단감염은 종사자

와 입소어르신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감염이 된 사례로, 현재 진행중인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2차 접종완료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식사는 말없이 하고 식사후 마스크 쓰고 말하기, 악수 안하고 목례하기, 외출 전·후 손씻기 및 손소독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고, 수도관 등 타지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김제에 도착한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현태/기자



# 장수군, 의료취약계층 대상 무료 노인건강진단



장수군은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한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대상자는 각 읍·면에서 신청받은 32명이 선정돼 혜택을 받게 됐다.

검진항목은 기본 진료를 비롯해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이며, 검진결과는 검진종료 후 10일 이내 가정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건강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사후관리도 이뤄질 계획이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과 여가생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 진안군 산악초타운, 가을밤 빛나는 야경명소로 인기

## 진안군 곳곳 야경 명소 찾는 즐거움 느껴보세요



진안군 산악초타운이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관내 야경 명소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복잡한 관광지를 벗어나 여유있게 진안군을 즐기려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산악초타운을 많이 찾고있다고 밝혔다.

11ha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성된 진안군 산악초 타운은 낮에도 다양한 볼거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으나 밤에도 다양한 조명들로 환하게 비치는 광경을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진다.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 비탈 곳곳에 토끼 모양 조명이 위치해 귀여운 토끼들이 사는 동화 속 마을인 듯한 느낌이 든다.

또한 별빛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별빛 터널과 달 모양 조명 등은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가족, 연인들의 발

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야경의 하이라이트는 300여평에 이르는 부지에 설치된 반디 조명이

다. 반디 조명은 실시간으로 작은 조명들이 깜빡이며 마치 반딧불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더불어 가을을 맞이해 산책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진 진안읍 운산 인공습지 경관조명과 마이산 북부 상가길의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해 관내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저녁에도 진안군을 찾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 역사를 품고 가을밤을 누비는 '2021 옥천 문화재 야행' 개최



옥천의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21년 옥천문화재 야행이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구읍 일원(정지용 생가~육영수 생가)에서 열린다.

군은 이번 야행에서 밤에 즐기는 문화유산으로 7가지 주제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은 밤에 보는 문화재인 '야경(夜景)', 밤에 걷는 거리인 '야로(夜路)',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사(夜史)', 밤에 즐기는 공연인 '야설(夜說)', 밤에 보는 전시인 '야화(夜畫)', 구읍 저잣거리인 '야시(夜市)', 전통 한옥 숙박체험인 '야숙(夜宿)'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야경'은 오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문화재 야행 거리 일원(정지용 생가~육영수 생가)에 거리조명, 고보

라이트, 네온사인을 설치하여 구읍의 밤풍경을 볼 수 있다.

군은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야행을 즐길 수 있도록 주로 야외에서 진행하며 현장관람 인원제한하고 전통등 만들기, 구읍 유람단, 물레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은 사전신청 접수를 옥천문화재야행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화재 야행에서는 신병주 교수의 "옥천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문화재 토크콘서트"와 풍물놀이, 퓨전 국악, 미디어퍼사드 등 다채로운 공연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위해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부모님 금혼식'이 열린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0대 이상 부부 1쌍으로

이메일로 참가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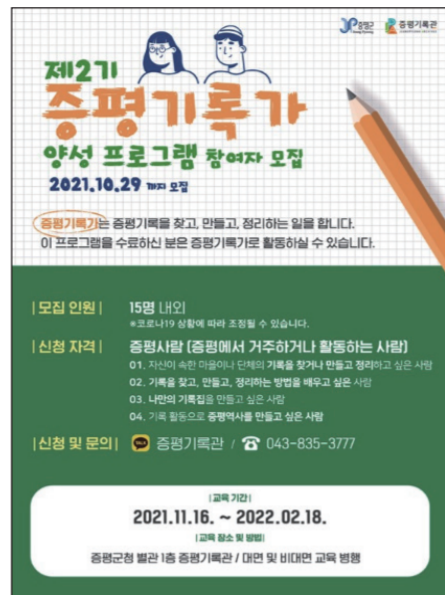
또한, 지역상권과 함께 하는 옥천 문화재 야행을 만들기 위하여 협력 상점 및 체험·판매부스를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옥천문화재야행'을 만들기 위해 구읍 번영회, 구읍 발전위원회, 구읍 마을이장단 등 지역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힐링이 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옥천에서 열렸으며, 전국에선 42개 시군에서 열린다.

고정화기자

# 증평군, 제2기 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하는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는 교육 과정이다.

프로그램 전 과정을 수료한 주민은 자신이 속한 마을과 단체를 중심으로 증평의 주요한 사건, 장소, 주제와 관련된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수집하는 작업을 주도한다.

이렇게 모아진 기록들은 증평기록관에서 증평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영구히 보존하게 된다.

제2기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은 11월 16일에 시작해 내년 2월 18일까지 3개월 간 주 2회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교육수료자는 스스로 수집·생성·채록한 기록으로 개인기록집을 만든다.

황영희 증평기록관장은 "지난 제1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기록가 11분이 활발하게 증평 아카이빙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2기 프로그램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진천군, 제22회 농·특산물 온라인 전시판매 행사 개최

진천군은 제42회 생가진천 문화축제 연계행사로 제22회 농·특산물 온라인 전시판매 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본 행사는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진천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진천군이 후원하며 제42회 생가진천 문화축제와 함께 3년 만에 전면 온라인 축제로 운영된다.

주요 행사는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실시간 농특산물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LIVE COMMERCE)와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

핑몰 '진천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함께 진행된다.

이벤트로는 실시간 방송 시 매회 구매자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진천군 농·특산물 꾸러미 증정한다.

또한 진천몰에서는 △3만원 미만 구입 시 2천원 할인 △3만원 이상 7만원 미만 구입 시 5천원 할인 △7만원 이상 구입 시 1만원권 할인쿠폰을 제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천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유(YOU)퀴즈', '내가 바로 진천 홍보왕' 등의 제목으로 진행되

는 이벤트행사 당첨자에게는 해당 축제기간 진천몰에서 사용가능한 2만원 온라인 쿠폰 증정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재갑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은 "3년만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다양한 판매 방식과 각종 이벤트로 살거리·볼거리·즐길 거리가 가득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청주시, 2021년 내수동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청주시가 내수동로(충북대학교) 일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수동로 간판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8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이달 간판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내수동로 일원 총 106개 업소의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지역 내의 점포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특색과 환경에 맞춰 개성 있는 간판으로 디자인 설계를 마쳤으며, 향후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과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해 전기 소모를 최소화하는 등 품격 있는 간판



을 제작·설치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경관과 안전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속초시립박물관, 리처드 록웰 기증사진 도록 발간



속초시립박물관이 2019년 미국인 리처드 록웰(Richard B. Rockwell, 1928~2019)이 기증한 1950년 속초 지역 슬라이드 사진을 담은 도록을 제작하였다.

리처드 록웰은 1950년대 중반 속초에서 미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방인의 눈으로 당시 풍경, 인물, 문화재 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속초시립박물관은 2018년 록웰이 소장하고 있는 속초 사진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1년여의 협의를 통해 2019년 사진을 기증 받았다.

이후 사진 보정작업을 진행하여 2020년 10월 기증 사진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이번에 269점의 기증 사진과 현재의 속초모습을 담은 도록을 발간하였다.

록웰이 기증한 사진은 폴 팬처

등 이전 기증자의 사진과 비교하여 6.25 전쟁 후 1950년대 중반 속초의 변천과정과 생활모습을 알 수 있다.

한편, 록웰은 사진과 함께 신흥사 경관(제반문) 1점을 반환하였고, 록웰 사진을 통해 신흥사 영산회상도가 해외로 반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 2020년 영산회상도가 환기본처 하는데 기여하였다.

속초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우리 박물관은 그동안 주한미군으로 복무 하였던 폴 팬처, 찰스 레버렛, 바이런 디킨슨, 더글라스 프라이스로부터 700여 매가 넘는 슬라이드와 사진을 기증받았으며, 락웰이 기증한 것까지 속초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1000여 매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현대 속초의 변천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 영동군, 가을 향기로 물드는 노근리 평화공원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 주요 산책길에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화사하게 피 군민들과 관광객들을 반기고 있다.

가을로 접어들어 따라 이곳의 가을 향기는 코로나19에도 아랑곳않고 점점 진해지고 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코스모스는 하천변을 따라 군락지를 이루며, 하양, 연분홍, 자주색 꽃잎이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더한다.

현재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를 잠시 피해, 널따란 공원내 만발한 코스모스길에서 특별한 정취와 낭만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추석 전부터 하나둘 봉우리를 띄워 자태를 뽐내기 시작해, 하천변을 따라 만개한 코스모스길은 사진 촬영의 명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원 중심부에 자리잡은 장미정원에는 가을 들어 다양한 품종의 장미들이 다시 개화했으며, 곳곳에 조성해 놓은 국화 정원에서도 국화꽃 송이가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조화로우미를 완성하고 있다.

저마다의 가을꽃들이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진한 가을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

현재 노근리평화공원은 기존 추모의 공간에서 사랑과 평화의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스모스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장미와 국화꽃이 조화를 이루며 10월까지 화려한 모습을 뽐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야외 시설이긴 하지만 군민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가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와 방역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추석연휴 5일간 임시개통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1만5천여명 찾아

## 세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 주상절리 인기 ... 11월 정식 개장 예정

추석 연휴 5일간 임시개장했던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1만5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인기를 끌었다.

23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임시운영 결과 1만 4,655명이 잔도를 걸었다.

추석 고향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휴 새롭게 조성된 잔도 트래킹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찾은 관광객은 구름다리와 전망대를 걸으며, 절벽으로 깎인 한탄강 절벽을 피부로 느꼈다. 이들은 스릴감을 만끽하며 "아찔하다"고 감격의 탄성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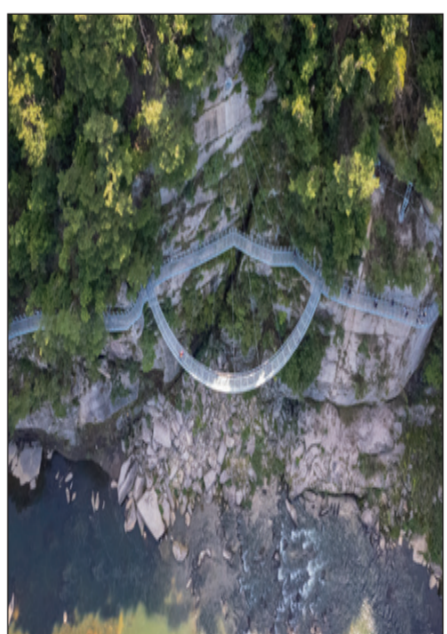
추석에서 시막을 찾았다가 주상절리길을 걷게 됐다는 한 관광객은 "발아래로 끝없이 보이는 한탄강을 보며 무섭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며 "나중에 유료가 된다고 해서 추가 구간이 더 개방된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오는 11월 정식개장할 예정이다. 철원군 순담계곡에 위치한 순담매표소(갈맷포 산 78-2)에서 시작해 동운동 드르니(군탄리 산 174-3)까지 3.6km 구간이다.

입장료는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장료 50%를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착한소비와 지역경기활성화를 꾀한다.

이현중 군수는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상절리길과 고석정꽃밭, 은하수교 등 철원 한탄강 주변 관광지를 많이 찾으셨다"며 "향후 소이산 모노레일과 철원역사공원 등이 완공되면 코로나시대를 극복하고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철원의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이세나기자

# 단양군, '제1회 단양군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3개를 포함해 총 17종(타이틀 이미지 1종 포함)이다.

규격은 360\*360px / 72dpi / RGB 모드 / 용량 650kb 이하로 군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해 출품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내달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를 실시해 10월 29일 당선작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이 제공된다.

군은 제출된 이모티콘을 활용해 오는 12월 이후 카톡 채널 '단양군청' 가입자 이모티콘 배부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군 관계자는 "카카오톡 채널 '단양군청'의 제1회 단양군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하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올해 6000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내달 18일까지 30일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역 관련 다양한 캐릭터 이미지와 이모티콘 제작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통한 카톡 채널 '단양군청'의 가입자 수는 지난 17일 기준 3725명으로 전체 주민의 13%가 가입했을 정도로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개월 간 300여명에 달하는 콘텐츠가 게시된 카톡 채널 '단양군청'에서는 일자리, 행사, 이벤트, 사업 추진현황, 코로나19 정보 등 군청의 전반적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출해야하는 이모티콘 종류는 정지형 13개, 모션형

총북 단양군이 군민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단양군청'의 제1회 단양군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하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올해 6000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내달 18일까지 30일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역 관련 다양한 캐릭터 이미지와 이모티콘 제작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통한 카톡 채널 '단양군청'의 가입자 수는 지난 17일 기준 3725명으로 전체 주민의 13%가 가입했을 정도로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개월 간 300여명에 달하는 콘텐츠가 게시된 카톡 채널 '단양군청'에서는 일자리, 행사, 이벤트, 사업 추진현황, 코로나19 정보 등 군청의 전반적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출해야하는 이모티콘 종류는 정지형 13개, 모션형

총북 단양군이 군민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단양군청'의 제1회 단양군 캐릭터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하며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올해 6000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내달 18일까지 30일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역 관련 다양한 캐릭터 이미지와 이모티콘 제작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통한 카톡 채널 '단양군청'의 가입자 수는 지난 17일 기준 3725명으로 전체 주민의 13%가 가입했을 정도로 군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6개월 간 300여명에 달하는 콘텐츠가 게시된 카톡 채널 '단양군청'에서는 일자리, 행사, 이벤트, 사업 추진현황, 코로나19 정보 등 군청의 전반적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출해야하는 이모티콘 종류는 정지형 13개, 모션형



### 진천군, '생거진천 쌀밥집' 신청 접수



진천군이 2021년 생거진천 쌀밥집 지정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신청 음식점을 모집한다.

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생거진천 쌀의 홍보와 대표음식점 발굴·육성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첫 쌀밥집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기준은 관내 생거진천 쌀밥을 주요 메뉴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세금 체납,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경력 등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와 표준조리법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한국의식업진흥원, 군 식산업지원팀으로 접수하

면 되고 '생거진천 쌀밥집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 사업의 선정될 경우 쌀밥집 지정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위생용품 지원, 홍보패널 제작,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외식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생거진천 쌀밥집 신청에 지역의 많은 음식점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정된 음식점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관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종로구의회 김금옥 운영위원장, 제28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종로구의회 김금옥 운영위원장이 9월 17일, '제28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 코리아아워리더·브랜드 대상'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연합뉴스, 대한민국의정대상 선정위원회, 코리아아워리더대상 선정위원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 이 주관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는 기자단과 전문 교수진,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 및 코리아아워리더대상 선정위원회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된다.

김금옥 의원은 1988년부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봉사를 해왔으며,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몸을 담은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직접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과 함께 지역현안을 상

이해했다.

선거 공약의 99%를 실천하며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부분, 종로의 보행

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바지한 부분, 정치1번지 종로구 의원으로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부분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울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주도하여 어르신과 취약계층 구민을 위한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김금옥 의원은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임하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가 의정활동의 지침이라며, "큰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도 종로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 기장군에 전통된장 100통 기부

여성농업인 대표단체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회장 심금옥)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9월 15일 '사랑의 전통된장 나눔 행사'를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다.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는 한국형 식문화 실천의 일환으로 전통장 전수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된장 담그기, 간장 가르기, 된장 뜨기 등 순수 전통된장과 간장을 담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과 전통장의 효능을 알리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임원들이 순수 담근 전통된장 100통(170

kg)을 기장군 행복나눔과에 기부했다.

기부물품은 기장군 5개 읍·면을 통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집밥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간편식 위주와 배달문화의 식단으로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며, "이런 매일수용 전통장을 활용한 식단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고 전했다.

한편,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국산 콩으로 만든 전통된장은 각종 영양분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어 예로부터 우리의 대표 조미식



품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도우며 천식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남궁영/기자

### 담양군,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모두 다 가치' 주민 호응



#### 미술·도예·가족공예 등 20개 주민 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문화재단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예술 동호회 프로그램 '모두 다 가치'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남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진행되는 '모두 다 가치'는 건강한 예술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인과 협력하고 예술분야 전문가를 연결해 전문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선정된 20개 동호회(미술, 도예, 가족공예, 퀼트, 규방공예, 문학, 원예, 목공예, 합창, 민속창극, 대금, 플루트, 민화 등)가 활동을 진행하며 예술동호회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장기적 불황으로 어려운 문화예술생태계를 지켜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동호회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활 예술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담양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가겠다"고 전했다.

오흥곤/기자

### 평택시 (주)현승건설, (주)현승종합건설 '이웃돕기 성금 기탁'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주)현승건설 및 (주)현승종합건설은 지난 16일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해 성금 2백만원을 청북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청북읍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성금을 기탁한 이현환 대표 및 이승근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 지역 주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승호 청북읍장은 "대표님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내주시는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모두가 행복한 청북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북읍에 위치한 (주)현승건설, (주)현승종합건설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남주/기자

김포시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빛누리합창단'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김포시대회 최우수상 수상



(재)김포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통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빛누리합창단'은 지난 9월 15일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김포시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통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방여수칙을 지키며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합창수업을 진행하며 빛누리합창단 친구들이 협동심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빛누리합창단이 준비한 '바람의 빛깔'이라는 곡은 가사의 의미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빛누리합창단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고자 했다.

빛누리합창단 단장 청소년은 "평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합창으로 친구들과 같이 하게 돼서 더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재밌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 청소년은 "합창 연습을 열심히 해서 힘들었지만 영상으로 결과를 확인하니 뿌듯하고 추억이 될 것 같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훈 수련관장은 "합창 대회 참여를 통해 통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기량을 뽐내고,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인천 동구, '전국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전국 최초,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활성화 사례 최우수 선정

인천 동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건축물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원도심에서 개별신축 등 물리적 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적경계 설정 과정에 전국 최초로 지적전문가와 공공건축가,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활성화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허인환 구청장은 "개별신축 등 원활한 물리적 재생을 위해서는 뼈통뼈통한 토지경계를 바르게 조정하는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구민의 토지가치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는 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적재조사와 도시

재생사업 협업 및 지적재조사 완료증명서 제공,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종남/기자

### 순천시, 2021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1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는 도내 22개 시·군 세정업무 공무원 50명이 참석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제 연구와 발표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로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순천시가 보유한 대표 자연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연구하여 발표했다.

순천시 정수와 신우리 주무관(세무9급)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상쇄)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이라는 연구과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인 '세(稅)황아리'에서 연초부터 주제 선정과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축적한 연구활동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다양한 신규 세입원 발굴, 새로운 징수 방법 모색 등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정수와 신우리 주무관(세무9급)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상쇄)를 통한 세입증대 방안'이라는 연구과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기석/기자



#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10월 14일까지 어린이·청소년 대상 도자 관련 그림·시화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도자재단이 10월 14일까지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자 관련 그림·시화 실력을 겨루는 '랜(LAN)선, 2021 제7회 아름다운 우리도자 글·그림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름다운 우리도자 글·그림 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10월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7회를 맞이했다. 재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도자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창의성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부터 참가 분야를 기존 그림 1개에서 글·그림(시화)까지 2개로 확대했다. 참가 대상도 초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10월 14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온라인 네이버 폼)를 작성하면 된다.

초등학교 대상 그림 분야 300명, 초등학교·중학생 대상 글·그림(시화) 분야 300명 등 총 6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대회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대회 방식은 참가자들이 사전 제공된 5점 도화지 등을 활용해 대회 당일 각자 장소에서 온라인 '줌(화상 플랫폼) 라이브(LIVE)' 방식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도자 관련 그림과 시화를 만들고 추후 경기도박물관으로 방문 접수하는 것이다. 대회 후 작품 접수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참가 기념품을 지급한다.

수상자는 분야별 70명(총 140명)을 선정한다. 상금 규모는 144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수상자 규모는

77명에서 14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늘었다. 구체적으로 ▲대상(각 1명) 상금 50만 원 ▲최우수상(각 2명) 문화상품권 20만 원 ▲우수상(각 4명) 문화상품권 5만 원 ▲특선상(각 6명) 문화상품권 3만 원 ▲특별상(각 10명) 문화상품권 1만 원 등이다. 수상작은 내년 9월 4일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도자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도자 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코로나19로 문화 향유 기회가 축소된 미래세대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대전시 한밭도서관, 2021년 독서 아카데미 5차 강연 개최



김찬호 교수'나를 돌보며 서로를 보살피기'

한밭도서관은 10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2시간씩 3회 일정으로 2021년 독서아카데미 5차 강연 「나를 돌보며 서로를 보살피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독서아카데미는 한밭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 협력 사업으로 문학, 역사, 철학, 자연과학 등 책을 기반으로 하는 통섭형 강연이며, 2021년에는 '지금 여기,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6월부터 강연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5차 강연은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의 강의로 비대면 시대가 가져 온 인간관계의 변화 및 소통의 양식과 맥락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서 심신의 안녕을 보살피는 마음의 원리를 짚어 보며 아울러, 협오와 배제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인격이 존중되고 안전한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강연 참가신청은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전화 접수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한밭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을 점검하면서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평택시문화재단, 2021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주말 예술 놀이터-그래비티 스페이스' 수강생 모집

평택시문화재단이 2021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주말 예술 놀이터-그래비티 스페이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1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주말 예술 놀이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평택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으로, 평택에서 진행되는 공연 및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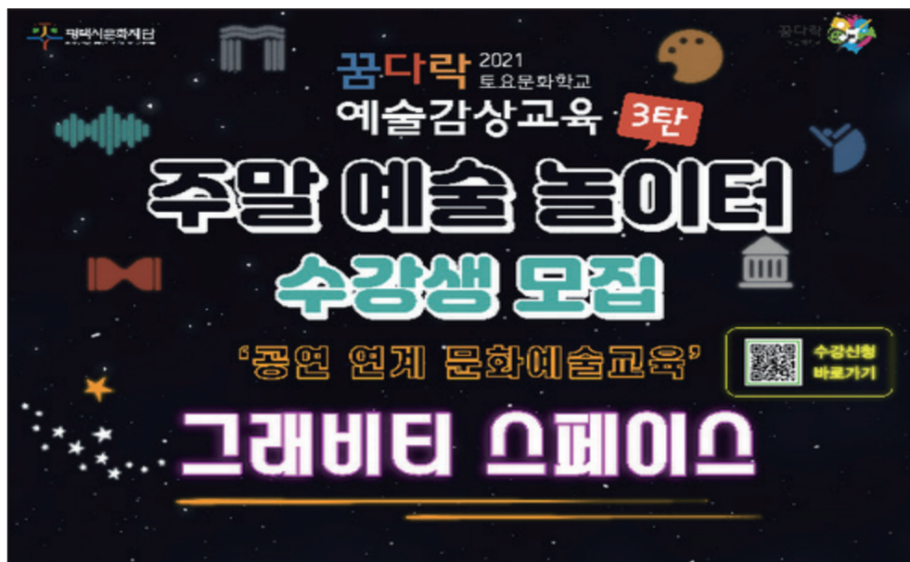
그 세번째 교육인 '주말 예술 놀이터-그래비티 스페이스'는 관객참여형 공연인 '이머시브시어터 '그래비티 스페이스'와 연계한 공연 감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연 연계 창의예술 교육 및 공연 관람 등 총 4회차에 걸친 비대면 및 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람권을 포함하여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본 교육은 관내 초등 4-6학년 청소년 총 60명(7기 30명, 2기 30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평택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평택시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본 교육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 동구 충장축제, 지역문화예술 공연 참가팀 모집

내달 5일까지...축제·행사 참여 3회 이상인 단체 및 개인

광주광역시 동구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는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의 무대공연에 참가할 지역 문화예술 공연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대면·비대면을 병행해 안전한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관내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충장 베란다 콘서트', 시민참여형 '충장 골목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인 공연을 선보일 기회를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될 올해 충장축제는 추억으로 힐링과 치유가 되는 특별한 문화공동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오랜만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노래, 연주, 춤은 물론 미술, 마임 등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

동구는 올해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과 비대면 콘텐츠 발굴·제작을 위해 광주시와 정무에 건의해 '지역 문화예술인 온라인 서포터즈'를 개최하는 등 축제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최근 3년간 각종 축제행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인 단체 또는 개인



김덕윤/기자

# 광산구 윤상원 열사 일대기 그림, 전국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담은 작품이 전국을 돌며 열사의 정신을 알린다.

광주 광산구는 23일 부산 부산진구청 백양홀에서 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첫 윤상원 열사 일대기 그림 전국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윤상원 열사 현장 사업의 일환으로 하성훈 작가와 함께 열사의 일대기 그림을 제작, 올해 5월 27일 윤상원 열사의 기일에 맞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회를 진행했다.

작품은 열사의 유년기부터 들불야학, 5·18 시민군 대변인, 도청을 사수하며 최후 항전하고 산화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광산구는 일대기에 담긴 윤상원 열사의 삶과 정신을 더 널리 알리고자 전국 순회 전시를 기획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부산진구청 전시는 30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이후 서울, 울산, 인천 등 대도시를 차례로 돌며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순회 전시는 전국에 있는 시민이 12개의 그림 작품으로 되살아난 윤상원 열사를 만나며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5·18의 상징 윤상원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민주화의 표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 부산시 개그맨 김준호,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 릴레이 동참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지목받아 역임 중인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집행위원장으로 참여



리스타 챔피언을 지명했다. 자신만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두 사람의 지명은 젊고 자유분방한 MZ세대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까지 진행되는 '함께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필두로 시작된 두 트랙(Two-track) 릴레이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정계·학계·재

계·연예인 등 230여 명이 참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엑스포 유치 응원 캠페인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성원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책 맛 듣는 인문학 특강 운영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책 맛 듣는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학을 도서관과 책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의 강화를 마련했다.

'신화로 읽는 역사, 역사로 읽는 신

화', '그니까 작사가 뭐냐면',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최신 과학이야기와 꿀잼 실험', '집과 똥으로 알아보는 세계문화 이야기', '이참에 나도 여행작가'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특강은 직장인이나 평일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저녁시간 및 주말에도 운영하며 참

여비와 재료비 부담 없이 모든 특강이 무료로 운영된다.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의 5개관(시립중앙·오포·초월·근지암·능평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번 특강은 각 도서관의 특성과 주제와 연계해 역사, 예술, 어린이, 과학, 여행을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박강호/기자

# 세종시, 가을밤 공원에서 즐기는 문화향연

10월 9일부터 중앙공원 시네마워크(돗자리 영화제)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일명 '돗자리 영화제'인 '시네마워크'를 개최한다.

돗자리 영화제는 팝페라 공연 등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성(10월 9일), 라라랜드(10월 16일), 엑시트(10월 23일) 영화를 무료로 선보이며, 코로

나19로 관람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해 오는 27일 당첨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돗자리 영화제로 조금이나마 편안한 밤을 보내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전라북도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로 '재단장'

### 관광 및 생활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고군산군도 편의시설 확충

고군산군도가 명품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

고군산군도가 연결도로 개통으로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한 가운데, 전북도가 고군산군도를 명품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군산군도 내 관광과 생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고군산군도와 지역주민이 함께 커가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인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18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31억 원을 투자하는 조성사업은 신시도 노후 연결도로 정비, 장자도 차도선 점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녀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



업을 통해 해양레저 체험센터, 카누·카약 체험장, 캠핑장 등의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부족한 관광인프라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각종 편의시설 및 볼거리 등의 관광인프라(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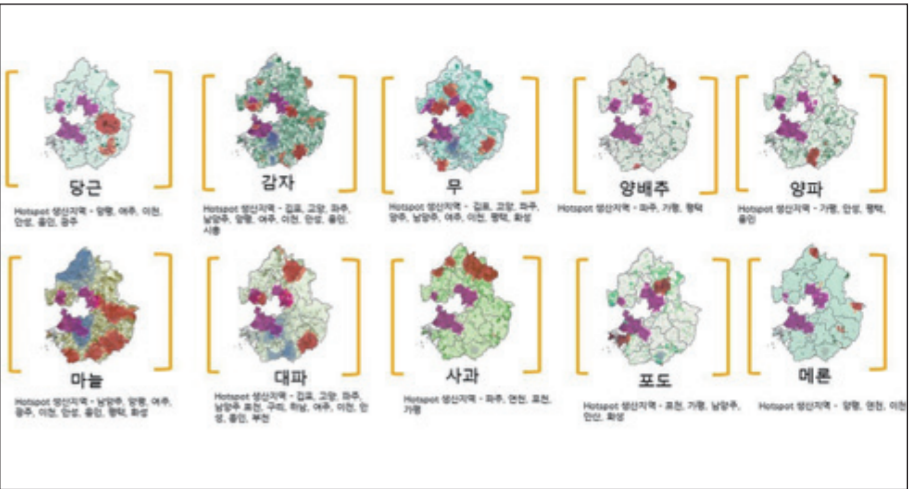
주차장, 화장실, 이정표, 체험관광 프로그램 등) 및 생활인프라(상·하수도, 쓰레기, 어항 기반시설, 소방서, 보건소, CCTV 등)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마을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해 마을 리더에게 발전계획 및 비전 공유하고 고군산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역량강화 교육(선진지 견학, 마을공동체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소규모사업(특화상품 개발, 고군산군도 탐방 코스 발굴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공감대 형성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

김호덕 전라북도 해양항만과장은 "고군산군도를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주는 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 경기도농기원, 농산물생산및수요 매칭분석결과발표... 생산체계개선추진



경기도, 지역별 농산물 생산분포와 주산지별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농산물생산지도 제작, 공개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서 당근과 감자, 무, 양파 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경기지역 생산수준은 낮아 먹거리 자급을 위해서는 생산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 농기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 10만 건과 경기도 학교급식정보 35만 건을 가공해 별정리별 생산수준을 각각 1~3등급으로 구분한 지도를 만들고 품목별로 어떤 지역에서 생산 집중이 일어나는지 분석했다.

이는 도민 먹거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로 학교급식 부족 품목에 대한 생산지역 파악을 통해 '먹거리 보장'이라는 경기도 먹거리 전략의 정책실현을 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분석 결과 전체 607개 작목 중 생산과 수요가 가장 안정적인 품목은 '벼'로, 생산과 수요 모두 상위 10%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벼는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50.8%)에 이르는 6만9,905ha에서 재배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콩 7,702ha(5.6%) ▲들깨 6,220ha(4.5%) ▲건고추 4,956ha(3.6%) ▲고구마 3,161ha(2.3%) 등의 순이었다. 총

607개 작목 중 상위 10개 작목이 전체 재배면적의 7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서 취급하는 전체 206개 품목(2만1,975톤) 중 관내 농산물 소비량은 전체 물량의 71.3%, 관외 농산물 소비량은 28.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외 취급비율이 높은 당근, 감자, 무, 양배추, 양파, 마늘, 대파, 사과, 포도, 멜론 등 10개 재배 품목이 학교급식 취급량의 2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각 품목은 높은 급식수요를 생산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생산을 늘리거나 유통경로를 변경해 생산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이번엔 제작된 농산물 생산 지도를 경기도먹거리위원회와 도의회, 농정부서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생산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농산물 생산지도를 통해 도출된 학교급식 부족품목을 바탕으로 먹거리 다양성 증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농산물 생산체계 개선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역 곳곳의 농산물 생산지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농산물 생산지도'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대전시, 10월말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집중 운영

### 예산낭비사례, 예산절감 아이디어 접수... 채택되면 최대 2천만 원 사례금 지급

대전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추석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2021년 세출규모는 6조 6,201억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11.2%가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 복지 환경 등의 세출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예산낭비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생활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만 뿐 아니라 시민이 직접 감시하면서, 예산의 오남용 사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수단이다.

불필요한 공사, 공공시설 에너지낭비, 부실공사, 낭비성 행사 등 예산의 부당지출 등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관련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 또는 모바일로 신고하거나, 대전시 예산담당관실(270-3103)로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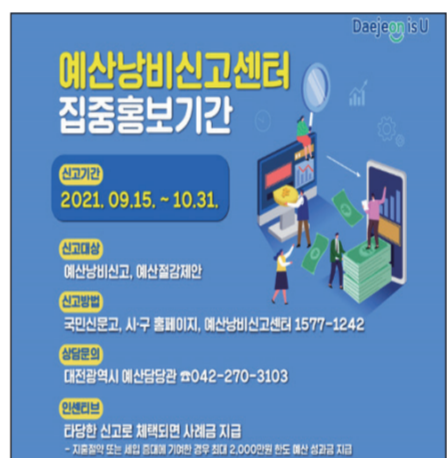
타당한 신고로 채택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운영기간 동안 은행 자동화기기, 온통대전 앱,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예산낭비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

이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며 홍보하는 3가지 키워드로 예산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대시민 심화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 강의를 통한 대전형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예산바로쓰기 감시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김승태 예산담당관은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등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투박·투박·투박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꼭 필요한 곳에 세출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안동시, "안동사랑 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증액

### 강진군,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 245억 원 달성! 광산구, '2021 온오프 청년일자리박람회' 개최

#### 전년 대비 37% 상승, 꾸준한 고객DB구축, 언택트 홍보 마케팅이 비결

#### 40여 기업 참여, 온·오프라인 채용·컨설팅 등



강진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이 245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매출액인 179억 원보다 37% 증가한 수치이다.

군은 지난 2017년 직거래 매출 79억 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15억 원, 2019년 123억 원, 2020년 247억 원을 기록하며 해마다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강진군은 농특산물 주요 소비처와 원거리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직거래 판매와 구입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로 평생 고객화에 집중해왔다. 고객을 지역과 구입 품목별로 분류해 현재 17만 명이 넘는 고정고객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명절과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감사 서한문과 쌀귀리, 묵은지 등 35개 품목 정보가 담긴 농수특산물 홍보물을 제작·발송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역신문, TV,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와 sns(페이스북 등), 파워유튜버, 식품 서포터즈를 활용한 적극적인 언택트 홍보 마케팅도 눈에 띈다.

일례로, SNS(유튜브)홍보 마케팅을 통해 한식 명인이 운영하는 '다강한정식' 식당에서는 배추김치를 추석 전 500건을 주문 받아 약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청립농원은 추석기간 매출 25억 원, 샤인머스켓 생산농가에서는 3억 원, 강진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업소 3개소(강진완도축협, 강진착한한우 명품관, 명성축산농협)에서 2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인터넷 주문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액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며 강진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유통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하고 체계적인 고객 DB 구축을 통해 유통 안전망 제공과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3일부터 10월10일까지 '2021 온오프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주고, 지역 기업에는 기업홍보와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드려라, 내일'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해 누구든 어디서나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김덕윤/기자

오프라인 행사는 10월6일부터 10월7일까지 이틀간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한 참가자만 입장할 수 있으며 1:1 방식을 통해 50명 미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총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함께 일할 청년을 모집하고 컨설팅할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3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구인기업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다음 10월6~7일 진행되는 현장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박람회에서는 하반기 채용을 앞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광주·전남 공기업들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계획을 소개하는 채용설명회와 NCS 취업전략 등 취업특강도 진행된다.

'언택트 채용'에 대비한 AI(인공지능)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점장대여 등 다양한 무료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23일부터 10월4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일자리정책과로 전화하면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덕윤/기자



#### 지류는 30만원, 모바일은 40만원→70만원으로 확대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안동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지류 30만 원, 모바일 40만 원)에서 100만 원(지류 30만 원, 모바일 70만 원)으로 확대하며, 10% 할인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5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개인은 만 14세 이상이 현금으로 월 30만 원까지 할인구매할 수 있으나, 법인 및 기관·단체는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단, 1기관·1전통시장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는 지류형에 한하여 월 500만 원 한도로 구매신청서 작성 후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play 스토어(또는 App 스토어)에 들어가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가입 한 다음 구매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부터 월 70만 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상품권 구매는 할 수 없으나 모바일로 선물 받은 상품권 사용은 가능하다.

지류형 가맹점은 5,300여개소, 모바일 가맹점은 1,970여개소로, 가맹점 확인은 지류는 시 홈페이지, 모바일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 '가맹점 찾기'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증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추세를 앞두고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 '하이클래스' 박소이→장선율, '국제학교 주니어 4인방'



tvN '하이클래스'의 국제학교 주니어 4인방 박소이, 장선율, 김지유, 서윤혁이 남다른 존재감과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하이클래스'는 파

라다이스 같은 섬에 위치한 초호화 국제학교에서 죽은 남편의 여자와 얽히며 벌어지는 치정 미스터리. 앞서 '하이클래스' 연출을 맡은 최병길 감독은 "국제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로서 아역들이 많이 나온다. 현장에서 아역들이 캐릭터를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 매번 감탄했다"고 밝히 기대를 높인 바 있다. 이를 증명하듯 박소이, 장선율, 김지유, 서윤혁 등 국제학교 주니어들은 뽀시래기 같은 귀여운 매력과 함께 캐릭터에 완벽히 녹아 든 연기력을 여과없이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박소이는 황나운(박세진 분)의 딸 '황재인' 역을 맡아 방송 전부터 관심을 높였다. 이에 극중 박소이는 뽀시래기 같은 눈망울과 명랑한 미소로 눈길을 사로잡은 데 이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송여울(조여정 분)의 아들 안이찬(장선율 분)을 챙기는

정 많은 캐릭터를 사랑스럽게 소화해내 미소를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된 안이찬을 향한 미안함과 당혹감을 눈빛과 표정으로 담아내는 등 감정 연기까지 완벽히 선보이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송여울의 아들 '안이찬' 역의 장선율은 찰싹떡 같은 귀여운 비주얼과 해맑은 미소로 시선을 사로잡는 동시에, 순수하고 착한 엄마바라기 면모로 광대를 자동으로 승천하게 한다. 무엇보다 극중 장선율은 자신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엄마가 힘들어하자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의젓한 면모를 보여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찬맘'을 자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남지선(김지수 분)의 딸 '이준희' 역의 김지유와, 차도영(공현주 분)의 아들 '곽시우' 역의 서

윤혁은 박소이, 장선율과 또 다른 매력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김지유는 극중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안하무인의 모습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한편, 완벽함을 추구하는 캐릭터에 걸맞게 영어, 하키 등 다방면에 특출난 재능을 뽐내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또한 서윤혁은 극중 배우 출신 셀럽인 엄마의 성향을 그대로 물려 받은 듯 넘치는 끼와 매력을 지닌 개구쟁이 면모로 웃음을 선사하며 극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박소이를 필두로 장선율, 김지유, 서윤혁 등 서로 다른 매력과 떡잎부터 다른 연기력을 지닌 주니어들의 활약이 극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제학교 주니어 4인방'이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고조된다.

현유주/기자

# 블랙핑크 리사, 솔로곡 글로벌 유튜브 송차트 1위



19일 유튜브 최신 차트(9월10일~16일 집계)에 따르면 리사의 타이틀곡 '라리사(LALISA)'가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지난 1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역시 '라리사'였다. 지난 10일 발표된 '라리사' 음원은 발매 직후 누적 72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서 15위를 기록한데 이어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Official

Singles Chart Top 100)에 68위로 진입, 주류 팝 시장 내 존재감을 확인했다. 리사는 K팝 여성 아티스트의 각종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타이틀곡 '라리사'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7360만뷰를 기록하며 솔로 아티스트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이틀 만에 1억뷰를 돌파, K팝 솔로 아티스트 최단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라리사' 음반 초동 판매량도 역대급이다. 지난 17일 한터차트가 발표한 초동 기록은 총 73만6221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터차트 기준 약 69만장을 기록했던 블랙핑크 '디 앨범(THE ALBUM)'의 초동 판매량을 뛰어넘은 수치다. 해외 판매분을 포함하면 80만장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누적 판매량 100만장 달성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라리사'는 사이렌을 연상시키는 도발적인 브라스 리프와 역동적인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힙합 장르의 곡이다. 리사는 이날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라리사' 첫 음악방송 무대를 꾸민다.

최재은/기자

# 베리베리, 청량X상큼 '마린베리' 콘셉트 스페셜 안무 영상 공개!

마린 룩 '찰떡' 소화! 심쿵 소년미로 '팬심 저격'!

베리베리(VERIVERY)가 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안무 영상으로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 베리베리는 지난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량하고 귀여운 '마린베리' 콘셉트의 스페셜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TRIGGER' 안무 영상은 베리베리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팬들의 투표로 심사됐으며, 다양한 콘셉트 중 가장 많은 득표 수를 기록한 '마린베리'로 결정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공개된 영상 속 베리베리는 각종 음악방송 등에서 선보인 카리스마 넘치고 시크한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스럽고 밝은 소년들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화이트와 네이비 톤의 마린 룩을 '찰떡'같이 소화한 베리베리 멤버들은 상큼한 매력까지 물씬 풍기

며 'TRIGGER' 안무를 선사해 글로벌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베리베리는 이번 안무 연습 영상에서 시종일관 미소를 짓거나 윙크를 하고, 애교 넘치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호러베리' 콘셉트와는 180도 차별화되는 '반전 매력'을 뽐내 팬심을 저격했다. 베리베리가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마린베리'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한 만큼, 팬들은 전세계 각국의 언어로 댓글을 달며 베리베리의 색다른 매력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한편 베리베리는 새 앨범 'SERIES 'O'' [ROUND 2 : HOLE]' 타이틀곡 'TRIGGER'로 빌보드, 아이튠즈 차트를 휩쓸며 인기 순항 중이며, 다양한 국가 언론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는 등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최만식/기자



# 현아던 커플 위력... '핑퐁' 뮤비 1000만부 돌파

타이틀곡 '핑퐁(PING PONG)' 뮤직비디오



'공개 커플' 현아(HyunA)와 던(DAWN)이 뮤직비디오 조회수와 SNS 챌린지로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아와 던이 지난 9일 EP '1+1=1' 발매와 동시에 공개한 타이틀곡 '핑퐁(PING PONG)' 뮤직비디오는 18일 오전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다. '핑퐁'은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귀엽고 톡톡 튀는 가사로 표현한 댄스 장르의 곡이다. 현아와 던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에 참여해 자신들의 색깔을 뚜렷하게 담아냈다. 특히 '핑퐁' 뮤직비디오는 현아와 던의 화려하고 키치한 비주얼과 티키타카 퍼포먼스로 공개 직후부터

음악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현아는 과묵색 헤어의 인어공주, 던은 초록색 헤어의 피터팬으로 각각 변신해 꿈속에서 상상할 법한 아름다운 동산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중독성 넘치는 커플 안무와 압도적인 댄스 브레이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아는 트렌디한 K-POP 디바다운 아우라를 드러냈고, 던은 탄탄한 실력에 유니크한 무드를 가미한 매력을 발산했다. SNS로도 '핑퐁'의 매력이 확산되고 있다. 현아와 던은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 등 온라인 숏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핑퐁'의 주인공인 현아와 던이 연습실, 음악방송 대기실, 복도, 주방, 드레스룸 등 다양한 스팟을 배경으로 촬영한 챌린지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하기 쉬운 커플 안무로 구성된 만큼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몬스타엑스 아이엠은 던과 함께 챌린지에 동참해 색다른 호흡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스튜디오 룰루랄라를 통해 공개되는 다큐멘터리 '아이팝인생큐 앤유?' 역시 화제의 중심에 선 콘텐츠다.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들은 총 590만 뷰를 기록했다. 두 사람은 알콩달콩한 호흡부터 프로페셔널하게 앨범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솔직한 모습을 공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재은/기자

# CHEEZE, 무르익은 '갯마을 차차차'에 로맨틱 감성 더한다!



1인 밴드 치즈(CHEEZE)가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연출 유재원, 극본 신하은,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지티스트)의 세 번째 OST 'My Romance' 가창자로 나선다. 17일 '갯마을 차차차'의 OST 제작을 맡고 있는 Stone Music Entertainment에 따르면 'My Romance'는 사랑으로 인한 설렘을 표현한 포크 팝 스타일의 곡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랑이 내 곁에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갖게 되는 두근거림과 벅차 오르는 감정을 감미롭게 풀어냈다. 'My Romance'는 감각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제이드(Jade)가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아 완성됐다. 감성을 자극하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치즈는 많은 인기 드라마의 OST에 참여해왔다.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스타트업', '사이코지만 괜찮아', '오 마이 베이비', '사랑의 온도' 등을 통해 시청자들과 목소리로 교감했다. 이날 관계자에 따르면 오직 어쿠스

틱 기타의 선율로 이루어진 멜로디와 치즈의 청량한 음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갯마을 차차차'의 담백하면서도 로맨틱한 감성이 시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 곡은 '갯마을 차차차' 5회에서 윤혜진(신민아 분)이 흥두식(김선호 분)과 비를 맞으며 해변을 걷는 장면에서 삽입돼 로맨틱한 분위기를 배가한 바 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물장난을 하며 거리를 쫓아 나가는 두 사람 위로 감미롭게 흐르던 곡이 'My Romance'였다. 또한 6회에서 댄스 듀오로 활약했던 윤혜진과 흥두식이 등대가요제를 마친 후 불꽃놀이를 함께 감상하는 장면에도 'My Romance'가 배경음악으로 쓰였다. 흥두식이 "누가 낭만에 불을 붙였네. 쓸데없이 예쁘게"라고 말한 후 윤혜진의 옆모습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은 식해커플을 응원하는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명장면. 이처럼 로맨틱한 감성을 극대화할 '갯마을 차차차' OST Part 3 'My Romance'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갯마을 차차차'는 현실주의 치과 의사 윤혜진(신민아)과 만능 백수 흥반장(김선호)이 짝내와 사람내을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힐링 로맨스로 신민아, 김선호, 이상아, 김영옥, 조한철, 공민정, 인교진 등이 출연한다. 매주 토, 일 오후 9시 방송.

현유주/기자

# '미스트롯2' 임서원X김지율X황승아!

'미스트롯2' 임서원X김지율X황승아!

'미스트롯2' 초동부 임서원, 김지율, 황승아가 뽀로로와 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콜라보레이션 음원을 완성했다. 임서원, 김지율, 황승아는 20일 오후 6시 뽀로로의 '바나나차차 키즈 트로트' 음원을 발매할 예정이다. '바나나차차'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큰 사랑을 얻으며 영상 누적 조회수 1.7억뷰를 달리고 있는 인기 키즈 팝으로, 이번엔 기존 곡의 통통튀는 멜로디에 상큼하고 발랄한 분위기를 더해 색다른 스타일의 노래로 재탄생했다. 특히 임서원, 김지율, 황승아 등 '미스트롯2' 공식 트로트 요정들은 트로트와 국악을 접목한 '바나나차차 키즈 트로트'를 통해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을 발산해 보는 이들을 '엄마 미소' 짓게 만들었다. 또한 '바나나차차'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물론이고, 포인트 안무인 엉덩이 춤 역시 한국 무용의 부드러운 선이 가미되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역대급 '키즈 트로트'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되고 있다. 뮤직비디오에도 임서원, 김지율, 황승아의 귀엽고 러블리한 모습들이 담겨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서원, 김지율, 황승아는 '미스트롯2'를 통해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으며, 현재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광수/기자

# 영화 '보이스' 1위... '기적' '상치' 2위 경쟁 치열



영화 '보이스'가 사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며 추석 연휴 초반 승기를 잡았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

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전날 '보이스'는 5만1197명의 관객을 동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5만2416명이다.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뒷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서준(변요한 분)이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에 있는 본거지에 잠입, 보이스피싱 설계자 곽프로(김무열)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개봉 첫날 1위 기록 후 지금까지 정상을 지키고 있다. 박정민, 임윤아 주연 '기적'은 이날 2만7863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기적'은 길이 없는 경성도 산골 마을에 간이역 하나를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인 고등학교 준경(박정민)의 이야기다. 마블의 첫 아시아 히어로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2만4637명이 관람, 2위와 큰 차이 없는 3위를 기록했다.

최만식/기자